

2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28.57	▲ 코스닥	732.35
	(+33.31)		(+14.38)
▼ 금리 (미국 9년)	3.285	▼ 환율	1231.70
	(-0.045)		(-3.80)

[경제종합]
제조업 겨울잠 깨나
조선·車·철강 등
업황전망 밝음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日, 민관 손잡고 K배터리 추격... 韓, 공급망 지원 절실

새해 들어 배터리업계의 투자 계획 철회·보류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대한 국내 기업의 고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 일본은 민관이 손잡고 5조6000억엔(5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K-배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세액 공제 등 지원책은 지지부진 한 상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국내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한 네 번째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계획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 연구진들이 배터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와중에 IRA의 핵심광물 요건 시행 시점은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 중이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로 IRA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컴퍼스 미네랄과 6년간 탄산리튬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SK온은 호주·칠레 리튬 생산기업 SQM과 리튬 광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두 달 만에 중국산 배터리 원료 수입량을 낮출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자칫 배터리 주문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의존 비중이 단기간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3월 이후 미국 IRA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한국과 같은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판단하기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어 업계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IRA 대응은 물론 ‘J-배터리’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총 5조6000억엔의 민관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밝히며 ‘K-배터리’를 추격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정부가 연초에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 불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해당 전략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응 부족’ 中企, 중대재해법 희생양 됐다

檢 기소 11건 중 10건이 ‘中企’
대기업 대비 책임 입증 수월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만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총 11건 중 10건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오너의 99% 가량이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관련법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기업들의 경영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총 82건이었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11건 가운데 중견기업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건이 제조 중소기업이거나 건설 중소기업이었다. 기소된 경영책임자는 모두 대표이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을 물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적·재

정적 여력이 부족한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가 수월해 검찰의 기소도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대기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혐의점을 찾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건수가 작년엔 ‘제로(0)’였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LG엔솔-GM 합작공장 중단설
경제 불확실성에 숨고르기 행보

美 ‘IRA광물요건’ 시행 코앞인데
韓 배터리 소재, 中 의존도 여전
정부 지원전략 수정·보완 해야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더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는 GM이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에 GM과 협력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선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GM과 함께한 1공장은 배터리를 작년 말부터 양산하고 있고, 2공장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3공장은 내년 초 중반쯤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공격적인 시장 개척은 주춤할 수는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결코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IRA와 관련한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8000만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3000만달러에 달해 87.9%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64.9%였지만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까지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해 ‘미국 IRA 대응’과는 먼 상황이 됐다.



한돈에 32만원. 질주하는 금값

국제 금값이 9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금한돈의 시세는 32만6000원이다. 1년 전 26만원대에서 약 20% 올랐다. 25일 오전 서울 시내 금은방에 금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공공요금 치솟는데... 한은, 금리인상 딜레마

가스 36.2% 전기요금 18.6% ↑
금리 인상 땀 대출 이자부담까지

올 겨울 도시가스·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채감물가 부담이 커졌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어 내달 금리인상 여부를 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동향

을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요금은 전년 대비 36.2%, 지역난방비는 34%, 전기요금은 18.6% 상승했다.

◆도시가스·전기요금 더 오른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

된다.

전기요금도 연료인 LNG비용과 기후환경 비용이 오르면서 지난해 세차레킬로와트시(kWh) 19.3원, 가스요금은 네차레에 걸쳐 메가줄(MJ)당 5.47원씩 인상했다.

문제는 도시가스·전기요금인상으로 2분기까지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대통령, 우동기·장태평·양창수 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사진 뉴시스
▲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210개 법안 제출한다

▲민주, 女 민방위 훈련 주장에 “지지를 올리려 술책”
▲홍준표 “눈치만 보는 재선 이상 TK국회의원은 모두 물갈이해야”



▲박진, 비건 전 美국무부 장관 등 접견... 한미동맹 의견 교환 /사진 뉴시스
▲정의당 “정부, 난방비 폭탄 예측 못하고 방치” 비판

경총 “효과 미미, 법 집행에 혼란… 형사처벌 규정 삭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처벌중심 기존의 법 없애고
‘예방법’ 법명 개정도 의미있어”
“기소까지 8개월… 수사 장기화
법률 모호성 등 부작용 현실화”

노동계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정부 법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

경영계도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형사처벌’ 규정 삭제를 우선 검토·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고,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중대재해법 개편 방향으



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대재해 규정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9일 정부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경총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의 통화에서 “기사를 봤는데 처벌 중심의 기존 중대처벌법을 없애고, 중대예방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며 “기업인 처벌이 아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는 취지로 봐도 법률 용어를 처벌에서 예방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은 많지만 대부분 수사 중이고, 처벌된 사례는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다. 경총도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에 명시된 중대 산업재해 정의와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지만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사례 등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수사 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법 개선안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로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고, 중대재해법 개악에 맞서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개정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 1면 ‘대응부족 중소기업’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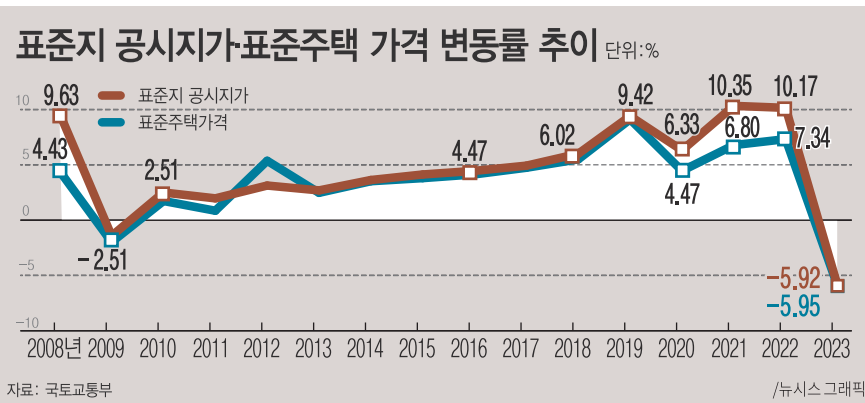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보유세 부담 완화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5.92% ↓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2% 하락했고,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

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중기 99% 오너가 대표 대표자 구속뎀 문 닫아”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희생양이 될 것이란 우려는 법 시행 이전부터 목소리가 높았다.

2020년 당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7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96.4%인 647곳이었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80.3%(539곳)에 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99%가 오너이면서 대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 정치권 등을 향해 수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해 지난달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1%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13.5%, ‘모르겠다’는 11.3%였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한 곳은 ‘전문 인력 부족’과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 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이 61.7%로 ‘긍정적 영향’(29.5%) 답변보다 두배나 많았다. 89.8%는 내년에 법 적용이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 유예’ 또는 ‘법 적용 예외’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주요기업 50% 사회공헌 지출액 늘렸다

전경련, 2021년 사회적가치 보고서
이유 22% ‘코로나로 인한 요구 증가’

국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회 공헌 노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3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사회공헌 지출액을 전년 대비 늘린 기업은 50.5%나 됐다. 이 중 26.5%가 25% 이상 증액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공헌에 힘을 들인 이유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22.1%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요구 증

가’를 이유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신규 론칭(20.5%)’, ‘경영성과 호전에 따른 사회공헌예산 증가(17.2%)’ 순이었다.

사회 공헌 지출액을 줄인 45.5%도 앞으로 사회 비용에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46.5%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16.3%는 ‘긴급 구호, 국가적 행사 등 당해연도 이슈 부재로 비용 감소’라고 밝혔다.

사회공헌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55.9%)’이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교육·학교·학술(13.1%)’과 ‘문화예술 및 체육(11.4%)’에 대한 지원도 많았다.

/김재웅 기자 juk@76

韓日 완성차 대표주자, 전기차시장 엇갈린 행보

현대차그룹 퍼스트무버 질주 ‘승승장구’ 도요타 전량 리콜 ‘뒷걸음질’

현대차그룹, 미·유럽서 높은 성장세
전기차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 돌파
도요타, 첫 전기차 제품 품질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현대차는 수십년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팔로워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시대에 ‘고장없이 오래타는 차’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첫 전기차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102만 2284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60만1448대, 기아는 42만836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글로벌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BYD의 누적 판매량은 각각 364만9007대, 337만대로 현대차그룹에 비하면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순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



현대차 아이오닉 5.

인다.

현대차그룹은 첫 전기차인 블루온을 시작으로 쏘울 EV·아이오닉5·EV6·GV60·아이오닉6 등 전기차 모델을 15종으로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 국내 등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전년 대비 196.2% 증가한 5만802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순위로는 테슬라(49만 1000대)와 포드(6만1575대)에 이은 3위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만 해도 2437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만족했지만 2015년 1만1063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8년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를 선보이며 6만1964대, 2019년 10만1362대, 2020년 17만81632대,

2021년 25만2718대, 2022년 37만1838대로 매년 성장을 이어갔다. 이같은 성장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 EV6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넓은 실내공간과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뛰어난 주행거리를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차그룹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4만346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쏘울 EV를 내놓고 그해 662대의 판매량을 거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후 출시한 니로 EV와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5 등 주요 차종이 한해에만 3만대 이상



기아 EV6

의 판매량을 거두며 성장을 이끌었다. 2019년 4만3455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9만5917대, 2021년 13만5408대 등으로 급증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전기차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지난해 11만9791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국내 완성차 가운데 9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년 새 5배 증가한 것이다.

다만 현대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 브랜드는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도요타는 지난해 첫 양산형 전기차 ‘비지포엑스’(bZ4X)를 전량 리콜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리콜 대상 bZ4X 2700

대이며, 유럽과 북미, 일본 등에서 진행됐다. 도요타가 bZ4X를 리콜하기로 한 것은 차량과 타이어를 연결하는 볼트에 문제가 있어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집중했던 도요타가 전기차를 내놓으며 전략 변화에 나섰지만 제품 품질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혼다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혼다는 2040년까지 모든 차량 생산을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연료전기차 판매 비율을 2030년 40%, 2035년 80% 비율로 높이고, 6년 동안 5조엔을 투입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등에 업고 펄펄 나는 中 자동차
“한국도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 필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고서

中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 자리
“FTA 조기 체결 등 韓 경쟁력 키워야”

중국이 지난해 세계 자동차 수출 2위에 오르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5일 발표한 ‘2022년 중국 자동차 글로벌 시장 수출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54.4% 증가한 311만대로 261만대를 수출한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320만대를 수출하며 1위가 확정적이고 한국은 잠정 230만대로 6위가 예측된다. 중국의 수출물량 중 신에너지차(BEV, PHEV, FCEV)는 약 68만대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며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중국의 자동차수출은 지난 2020년까지 100만대 전후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100% 이상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중 절반가량은 미국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이다.

〈중국 제조사별 자동차 수출 대수〉

회사명	수출대수
상해기차	609,747
기서기차	310,769
장안기차	193,873
동풍기차	171,057
지리자동차	141,907
장성기차	111,744
북경기차	82,021
장화이차	79,845

기간 : 2022년 1~9월 /Fourin

2022년 상반기 기준 테슬라는 중국에서 9만7182대를 수출하며 중국의 상반기 신에너지차 수출 20만2000여대 가운데 48%를 차지한다.

기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러시아, 이란, 중남미 등 1인당 소득이 낮거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곳을 위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신에너지차를 필두로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개선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기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주요 국가는 이란, 인도, 베트남, 미국, 이집트 등이었지만 2022년에는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 사우디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오세아

니아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된 모습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제조사들의 빈자리를 중국 자동차(하발, 지리, 체리)가 채우며 2022년 1~11월 기준 러시아 시장점유율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에서는 판매량 상위 10개 브랜드 가운데 3개가 중국 브랜드(지리, 장안, MG)가 자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 중”이라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동, 중남미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과 신규 FT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등 외투기기업의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국내기업의 전기차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노동 유연성 확보 등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성문 기자



코스피 2400대 회복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31포인트(1.39%) 오른 2428.57로 장을 마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거주자외화예금 1109.8억弗… 사상 최대

한은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달러 강세 꺾이며 기업 중심 큰폭 증가

지난달 국내 거주자외화예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풀 꺾이자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쌓아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109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5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과 유로화예금이 증가했다.

지난달 달러화예금 잔액은 85억9000만달러 증가한 953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상거래 대금이 예치되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는 등 기업들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로화예금 잔액은 일부기업의 수출결제대금이 예치되면서 5억달러 증가한 55억달러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90억1000만달러 증가한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9억 9000만달러 증가한 109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961억달러)은 86억6000만달러, 개인예금(148억8000만달러)은 13억4000만달러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조업 겨울잠 깨나… 조선·車·철강·기계 등 전망 ‘맑음’

전문가 2월 제조업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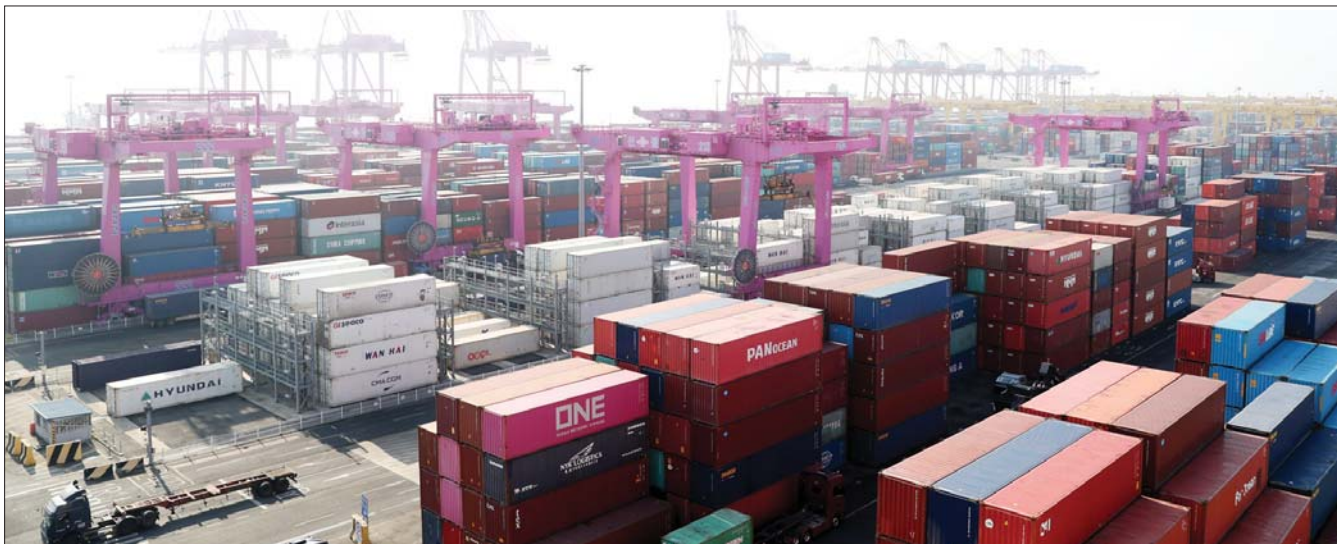
PSI 지수 77→90으로 올라
부정적 전망 대한 우려감 약화
내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디스플레이·화학 등은 하락

다음달 국내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업황 개선이 주목된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2월 제조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가 전월(7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PSI지수의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2월 업황 전망 PSI가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한 90을 기록하면서 부정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87)는 5개월 만에 상승하고, 수출(91)은 2개월 연속 상승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뉴시스

하면서 생산(96) 역시 추가 상승하고, 투자(84)도 4개월 만에 상승했다.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는 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내수(79)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한 반면, 수출(83)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생산(93) 역시 4개월 만에 상승했다. 재고(120)는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 투자(77)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한 가운데 채산성(88)은 2개월 연속 올랐다.

기준점인 100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사이 업황 전망이 크게 올라 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침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

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특히 내달 조선·자동차·철강·휴대폰·기계 분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세부 업종별 제조업황 PSI를 보면, 조선(110), 자동차(107), 철강(108), 휴대폰(104), 기계(104) PSI가 기준점(100)을 넘어 업황 개선 기대감을 시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섬유와 화학,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 기계부와 휴대폰 등 ICT부문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업종별 전달(1월) 업황 현황 PSI는 철강과 바이오·헬스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ICT부문의 전 업종과 소재 일부 업종에서 100을 상당폭 하회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바이오·헬스와 철강, 조선, 휴대폰,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하고, 가전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디스플레이, 화학, 섬유 등의 업종은 하락했다.

조선의 경우 생산(145)과 수출(135)이 기준점을 훌쩍 넘어 개선 가능성이 컸고, 투자액(115)과 채산성(115)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금리로 선박 금융 비용이 상승해 선박 발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건조량과 수주량

회복이 예상되며 높은 선가로 수주한 일부 선박들의 건조 착수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연초 계획된 해운사와 에너지사의 투자 실현 예상 등 긍정 평가가 많다.

철강은 내수(90)와 수출(90)이 기준점 이하로 전망되나, 생산(142), 투자액(117)에서 개선 의견이 많았고, 자동차는 생산(120), 수출(107)이 개선되는 반면 투자액(93), 채산성(8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한정책 완화 이후 철강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또 중국 경기 부양과 빅테크 규제 완화 등 공동 부유 정책 기조 완화 등으로 중국 철강 공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경우 고금리와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신차 판매 호조, 1분기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 가능 전망으로 경기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긍정 요인으로 본다.

휴대폰의 경우 ‘소비 회복 지연’과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출시’와 함께 판매가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제로 코로나’ 여파… 경기 침체에 기업 상폐 ‘우수수’

차이나 뉴스&리포트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 46곳
전년 대비 2배 급증 ‘최고치’
경기 침체로 재무상태 악화
상폐 가속… 투자자 주주의

중국 증시에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이보다도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차이신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 등에서 퇴출된 기업은 총 46개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대부분 재무상태가 악화된 게 상장폐지 이유였다. 올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이신이 지난 3분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 가운데 최소 80곳이 상장 유지를 위

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증시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재무성과 외에도 내부통제, 법 위반 등이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말에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했다. 증시를 어지럽히는 ‘썩은 사과(bad apple)’와 만년 한계기업 상태인 이른바 ‘좀비기업’ 등을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작년 퇴출된 기업 가운데 39곳이 재무 성과 요건에 걸렸다. 순손실과 합

계 매출이 1억위안 미만이거나 최근 회계연도 말에 순자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가 요건으로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20거래일 연속 주당 1위안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3억위안 미만이면 상장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5000개 안팎이며, 시가총액은 약 79조위안에 달한다.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

전히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양하게 악용되고 있다.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아이 테크놀로지는 3년 연속 적자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주요 주주가 7억위안의 현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출을 피했지만 이달 들어 해당 주주가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자본 납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칭화대 금융연구소 장웨이 부회장은 “상장폐지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들은 중국 증시의 기반이지만 가장 쉽게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경기·물가·금융 3가지 변수, 가중치 판단 잘해야”

>> 1번 ‘공공요금 치솟는데’서 계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유로지역의 가스·전기요금은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은 13%에 그쳤다”며 “한국의 경우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올해 반영돼 물가상승 둔화속도가 더뎠을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뒤늦게 반영돼 물가가 잡히는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 98%

이처럼 물가·자극요소가 더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물가를 생각하면 최종금리 수준은 3.50~3.75%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한 번 더 올린다면 2월에 빨리 올려놓고 시장상황을 보는 것이 불확실성을 더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시장의 98.1%는 내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시장 하락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한미간 금리차는 1.25%p로 벌여

진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로 한국의 기준금리(3.5%)보다 1%p 높다.

한미간 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 환산 가격을 높여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한미간 금리차 확대가 곧바로 자금유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이자 부담에 소비약화

업계 안팎에선 시장상황을 지켜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동안 주택가격이 급

등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출을 쓰는 서민들이 늘었다”며 “그 여파로 인해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이자 부담은 민간소비 약화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을 통해 올해 국내 소비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이자부담 증가와 실질구매력 저하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크게 올리면 부채 정리(디레버리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경기·물가·금융 등 3가지 변수의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보장 강화 vs 재정안정 딜레마… “퇴직연금 차선책”

野, 노후소득강화 퇴직연금 토론회
정창률 교수 “준공적 연금 역할해야”
자영업자·1년미만 근속자 등 한계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에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 더해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계산(최종 3개월 평균급여×근속년수)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DB(확정급여)형,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DC(확정기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DB형은 원리금을 지키려는 근



연금개혁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25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촘촘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 기념사진 촬영 장면. /박태홍 기자

로자, DC형은 투자로 적립금을 불리려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작은 사업체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진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0.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퇴직연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수의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2021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가 39만7270좌인데 반해, 이중 95.7%인 38만286좌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4.3%(1만6984좌)에 그쳤다. 반면, 연금수령 계좌의 비중은 4.3%임에도 연금 수령액은 전체 적립금 9조3426억원 중 34.3%인 3조2028억원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적립금이 많은 퇴직자는 연금을, 적립금이 적은 퇴직자는 일시금을 수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제발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 사적 연금이기 때문에 사적복지 강화가 불평 등 확대를 일으킨다”거나,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상품인데,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경우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등의 퇴직연금의 선입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나, 공적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준공적 연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절대 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및 해지 통해 적립금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퇴직연금은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40년 가입시 20~24%의 소득 대체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자체의 저수익성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익

률을 보였고 이는 적립식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며 “저수익의 핵심적인 이유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해 쓰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쟁에 대해서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이 가능해지겠으나,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공적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발전 방향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제2의 중동 붐 위해… 영업사원 각오”

순방 성과 국무위원과 공유
투자 협력 플랫폼 등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거둔 성과들과 관련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비롯해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 첫 UAE 국빈 방문에 대해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에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맞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며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에 대해 모든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 보고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말했다”며 “국무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제 집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국무위원들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더라도 자주 이뤄지게 하고 그들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순방에 대해서도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공급망, 기후,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 그리고 행동하는 연대를 제안했다”며 “취리히 공대에서 쿼텟 사이언스의 석학들과 함께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관한 바람직한 국가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정의당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뒷전”

정의당이 최근 대폭 인상된 난방비와 관련 “민생경제 위기 앞에 국가가 없다”며 “난방비 폭탄을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방치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 민심 밟상 최고 화두는 난방비 인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가스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만원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터무니없는 난방비 폭탄에 그저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했다지만,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며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위 대변인은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연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민들은 이 경제 위기가 누구 탓인가 보다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대변인은 “난방비 폭탄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 계층, 저소득 계층”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어서 중산층 서민들 난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배가 넘게 뛴 난방비에 기존 복지제도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금리폭등, 물가폭등 속에 한겨울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나경원 불출마로 與 경선 구도 ‘출렁’

나경원 “특정 후보 지지 없을 것”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졌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2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 당초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함께 3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또 다른 후보군인 나 전 의원 불출마로 상황은 달라졌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불출마 선언에서 나 전 의원은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같은 심정이었다”며 “저의 출마가 본연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워 국민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당대회 불출마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 결정으로 인해 당 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과 관련, 특정 후보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도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해 불출

마를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관련 나 전 의원은 “어떤 후보, 다른 세력 요구나 압박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냐는 메시지인 셈이다.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김기현 의원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두고 선 그은 발언이기도 하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마이데이터로 디지털 경쟁력 제고… 자녀 보장성 보험 강화

2023 보험사 경영전략

⑧ KB손해보험

성과창출·전문성 방점 인사 단행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경쟁력 ▲
아워홈 등과 헬스케어 진출 속도
금쪽같은 자녀보험 등 혜택 확대

“지난 2년간 KB손해보험은 강력한 본업 강화 및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했으며 비즈니스 영역 확장(헬스케어, 마이데이터)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정한 조직문화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은 취임 3년차에 들어선 새해 시무식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사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KB손해보험은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등 새막거리 창출에 매진하고 디지털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디지털 활용 방안에 주력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성과창출’ 및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했다. ▲개인마케팅본부 ▲GA마케팅본부 ▲일반마케팅본부 ▲CPC디지털부문을 신설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과 일반보험 개발부를 통합했으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개발 인력을 재편했다. 아울러 지난 인사개편에서 박영미 신임 상무가 최연소 여성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업계에서 화두가 됐다.

◆마이데이터·헬스케어 등 확대

지난해 3월 KB손해보험은 자사 애

플리케이션에 마이데이터 기능을 탑재했다. 은행, 증권, 카드 등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개인별 보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증강현실(AR)자산조회 서비스가 주목된다. AR자산조회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특정 금융사의 간판 및 문서 등을 비추면 인식한 금융기관의 자산정보를 한 번에 제공한다.

보험금청구 간소화 기능도 담았다.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보험금 지급 간소화 역량이 소비자들의 주요 평가 대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지난달 신설한 고객·상품·채널(CPC)디지털부문 등을 통해 강화할 가능성도 등장한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업계 관계없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 기능 강화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다”라고 귀띔했다.

자회사인 KB헬스케어를 통해 관련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아워홈’과 ‘솔티드’, ‘블루엔트’ 등과 손을 잡으며 헬스케어 진출에 몰두했다.

아워홈과는 플랫폼 개발 협업을 통해 자사 건강관리 플랫폼인 ‘오케어(O’Care)’를 선보였다.

KB손해보험은 오케어 내 콘텐츠 강화를 위해 ‘블루엔트’와 협업을 맺어 의학 콘텐츠를 제공 받고 있으며 ‘솔티드’와의 협업을 통해 바른 자세를 진단해주는 ‘자세밸런스 진단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빅데이터 사업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의료데이터를 판매했다. 한국웰케어산업협회는 KB손해보험의 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미니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데이터 상품화 경험을 통해 올해도 데이터 사업에 힘을 쓸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보험 개발 확대

지난해 KB손해보험의 ‘금쪽같은 자녀보험’이 러브콜을 받았다. 오은영 박사를 메인 모델로 내세워 이목을 끌었으며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한 단독 판매와 지속적인 보장 강화를 통해 내실을 다졌다.

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소아기 자폐증 보장 내역을 담았다. 주의

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만성 틱 장애까지 혜택에 포함했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한 달간 자녀 보험을 강화해 후유장애 특약을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늘렸다.

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출시 이후 ‘정신질환 치료비’와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에 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자녀 보험을 중심으로 상품 내용을 강화해 가입자를 늘리려는 전략이다. 올해도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해 상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족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업계에서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상품은 해지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준 높은 회사가 된다면 고객은 의심하지 않고 ‘KB손해보험’이란 이유만으로도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예금금리 내리막길… 저축은행도 4%대로 ↓

업계, 한 달 새 6%대 상품 사라져
충분한 자금 수수에 인자 기조 유지

주요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쏠소리에 시중은행이 금리를 낮추자 간격을 맞추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3개월 만에 연 4%대로 떨어졌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물)의 평균 금리는 연 4.93%로 하루 사이 0.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일 4.96%로 떨어진 이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13년 만에 연 5%선을 웃돌았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연 6.5%의 예금 상품을 출시해 은퇴자 및 자산가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기준 금리 인상 기조에 시중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이자 저축은행 또한 맞불을 놓은 것. 통상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은 시중은행보다 연 1~2%p 높게 책정한다.

그러나 한 달 사이 연 6%대 상품이 모습을 감췄다. 이날 기준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은 대백·엠에스·유니온·한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물)이다. 네 상품 모두 연 5.4%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씨케이



정기예금 금리가 3개월 만에 연 4%대로 떨어졌다. /뉴시스

(CK)·안국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연 5.32%로 뒤를 잇고 있다.

금융업계는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인하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지난해 4분기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수신했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취급량 증가 등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신 금리를 높인다.

부동산 시장 경색 또한 영향을 준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이 줄어서다.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저축은행의 경우 의무여신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대출 취급량이

줄어들면 수신 금리 인상 필요성도 떨어진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고, 기업 및 PF대출 취급도 줄고 있어 예금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균 금리는 연 4%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연 5% 중반의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지금 가입해도 1억원을 맡기면 매년 5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때는 1년물 상품보다는 2~3년물 상품이 유리하다. 1년물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높지만 만기 이후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분산해서 보관할 계획이라면 서둘러야 한다. 한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20일 이내 또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입이 막혀있는 사이 업계 평균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수신 금리는 한 번 떨어질 때 1%p 이내에서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빠른 가입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케뱅, 아파트담보·전세대출 금리 인하

아파트담보대출금리 최대 0.64%p
전세자금대출 최대 0.24%p 내려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담보대출금리는 최대 0.64%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금리는 연 4.69~6.07%로,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4.7~6.07%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최대한도는 10억원, 생활

안정자금 최대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대출은 일반전세일 경우 최대 0.24%p, 청년전세일 경우 최대 0.11%p 인하한다. 일반전세대출 금리는 연 4.66~6.08%, 청년전세대출 금리는 연 4.61~5.05%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車 보험사기 당했다면, 인상분 환급 가능

금감원,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지난해 2264명에 9.6억 달러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B씨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뒤, B씨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보험사는 B씨의 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해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월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사기 환급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보험사는 피해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67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뜻한다.

금감원은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 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카카오뱅크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회선조회·신규개통 제한 가능

카카오뱅크가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하고 필요 시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인증·보안 - 금융사기예방’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계좌 개설 고객 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중인 만 19세 이상의 고객이라면 인증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조회 시점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모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회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마음이 닿는 곳에서 보험이 시작되니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보험이 시작된 곳은
어쩌면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늘 현대해상은
이렇게 말해나봅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예고된 어닝 쇼크’ 전자업계, 올해는 수익성 개선 자신감

삼성전기 영업이익 전년비 68%↓
LG이노텍도 60.4% 쪼그라들어
하이닉스도 1조 안팎 적자 예상

상반기 재고조정 통해 안정 기대
전장사업 강화 수익성 완화 전망

군건했던 전자 부품 업계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대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모습이다.

삼성전기는 4분기 매출1조9684억원에 영업이익 101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는 결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 19%에 영업이익 68%나 떨어졌다. 전분기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삼성전기는 4분기에 세트 수요 둔화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IT용 MLC C(적층세라믹캐패시터) 및 카메라모듈, BGA(모바일용 패키지기판) 등 주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도 주력 분야인 컴포넌트 부문이 8331억원, 광학통신솔루션 부문이



삼성전기 FCBGA 출하식에 참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 5번째)이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655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0%, 27% 감소했다. 비수기에 모바일 시장 불황까지 겹친 탓이다.

올해 전망도 일단 어렵다고 봤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세트 수요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운 경영 환경을 예고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다. LG이노텍은 4분기 매출 6조5477억원에 영업이익 1700억원을 거뒀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14.4%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0.4%나 쪼그라들었

다. 매출은 시장 전망을 충족했지만,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LG이노텍 역시 4분기 중국 봉쇄로 인한 생산차질과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기관소재사업이 3915억원으로 전년보다 8% 감소한 결과로 부진을 보였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시작으로 전자업계는 본격적으로 지난해 추락한 실적을 ‘고백’할 예정이다. 27일 LG디



LG이노텍이 개발한 연속줌 카메라모듈

스플레이와 LG전자, 31일에는 삼성전자와 다음날인 2월 1일에는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실적을 통해 ‘어닝 쇼크’를 확인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조원 안팎의 영업 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자 업계가 마냥 부정적이지 않은 않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었지만, 상반기까지 재고 조정을 통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고부가 제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삼성전기는 4분기에도 고부가 제품인 전장용 MLC 캐패시터, 서버와 하이엔드용 패키지 실적은 성장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솔루션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0.2% 성장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FC-BGA 캐패시터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계획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이노텍도 주력 사업인 광학솔루션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 31.1%, 영업이익이 0.6%나 성장했다. 미래 먹거리인 전장부품사업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45%나 많은 매출로 6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올해에도 공급망관리와 플랫폼 모델 중심 개발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세트 시장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을 새로 출시할 예정, 애플도 중국 봉쇄 해제로 생산량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LG이노텍의 연속줌 카메라 모듈 등 새로운 제품으로 수익성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개월 만에 성능↑… 초고속 모바일 D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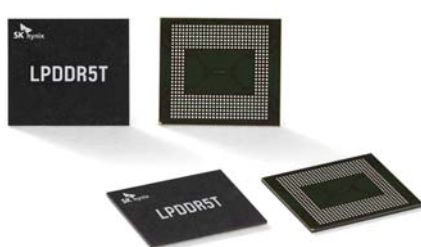
LPDDR5T 하반기부터 양산
초저전력에 초당 77GB 처리

SK하이닉스가 모바일용 D램에 터보를 달았다.

SK하이닉스는 최근 LPDDR5T를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LPDDR5T는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한 모바일 D램인 ‘LPDDR5X’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동작 속도를 13% 빠른 초당 9.6Gb까지 높였다. 이름도 ‘터보’를 상징하는 T를 붙였다. 그러면서 전압도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가 정한 기준 1.01~1.12V를 충족하며 초저전력 특성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4세대(1a) 공정에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하



SK하이닉스는 LPDDR5T를 개발하고 하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는 차세대 공정인 HKMG도 적용해 성능을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가 고객사에 제공한 LPDDR5T 16Gb 용량 패키지는 초당 77GB를 처리할 수 있다.

LPDDR5T는 차세대 규격인 LPDDR6가 나오기 전까지 플래그십 모바일 제품군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5G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초당 8.5Gb 속도의 LPDDR5X를 내놓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기술한계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며 “앞으로 이번 신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공급해 모바일용 D램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류성수 부사장(DRAM 상품기획담당)은 “이번 신제품 개발을 통해 초고속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 개발에 힘써 IT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Rated brands	Overall satisfaction	User friendliness	Design	Durability	Value for money	Camera quality	Battery and charging performance
SAMSUNG	★★★★★	★★★★★	★★★★★	★★★★★	★★★★★	★★★★★	★★★★★
Apple	★★★★	★★★★★	★★★★★	★★★★	★★★★	★★★★	★★★★
oppo	★★★★	★★★★	★★★★	★★★★	★★★★★	★★★★	★★★★
Google	★★★	★★★	★★★	★★★★	★★★★★	★★★★	★★★★

캔스타블루의 스마트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캔스타블루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이폰 제치고 ‘1위’

호주 소비자 만족도 전분야 별 5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을 제치고 호주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전체 만족도 ▲사용자 편의성 ▲디자인 ▲내구성 ▲가격 ▲카메라 성능 ▲배터리 등 전 분야에서 만점에 해당하는 ‘별 5개’를 받았다. 해당 설문은 호주의 유력 소비자 만족도 조사업체인 캔스타 블루(Canstar Blue)에서 조사한 결과로 해당 업체는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 시리즈 등을 매년 출

시하며 지속해서 최고의 스마트폰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며 “폴더블 시리즈와 갤럭시A 등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을 원하던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에 이어 2위에 선정된 애플은 사용자 편의성과 디자인에서 별 5개를 받았다.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별 4개를 받았고, 배터리는 별 3개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지난해와 재작년 이 업체 평가에서 최고의 스마트폰에 선정됐다 올해 삼성전자에 자리를 내줬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번에 110개 세척… LG전자, 14인용 식기세척기 선택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
UP기능 통해 세척 종료음 등 제공

LG전자 식기세척기도 용량을 더 키웠다.

LG전자는 26일 14인용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식기세척기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번에 최대 110개를 세척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하단 높이가 10cm로 12인용(15cm)보다 낮아졌다. 주방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겔레받이’를 낮게 시공하는 트렌드를 수용해 주방 인테리어

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UP가전으로 새로운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표준 코스 대비 약 20% 줄이는 ‘에너지 절감 코스’ ▲소음을 표준 코스 대비 3데시벨(dB) 줄이는 ‘야간조용+ 코스’ ▲세척 종료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지속 제공된다.

성능도 그대로 이어간다. 트루스팀으로 위생적으로 세척하고 트루건조로 세척후 건조까지 끝내준다.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연속장치를 적용해 석회질을 줄여 물 얼룩도 줄였다.

관리 편의성도 높다. LG씽큐앱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30회 이상 사용하면 통살균을 제안해 청결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 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출하가는 204만원이다. 색상은 오브제컬렉션 베이지 컬러다.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솔루션 사업부장 이현욱 전무는 “주방 공간의 가치를 더하면서 주방 일의 번거로움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내달부터 부산~오사카 매일 3회 운항

에어부산, 노선 증편

에어부산이 김해공항 취항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일본 주요 도시 4곳(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도쿄(나리타))에 항공편을 편성한 가운데 부산~오사카 노선을 증편하며 지역민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교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을 매일 왕복 2회에서 왕복 3회로 증편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현재 김해공항 출발 시간 기준 오전 8시 35분, 오후 4시 30분 등 오전과 오후에 각 1편씩 부산~오사카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오전 11시 25분 항공편을 추가해 오전 2편, 오후 1편 등 매일 왕복 3회 운항한다.

/허정윤 기자

포켓몬·신비·카카오프렌즈까지… 이통사, 키즈 마케팅 올인

SKT 켄 꾸러기 포켓몬 에디션 액세서리 3종에 연필·필통 구성
KT ‘신비 키즈폰3’ 출시
신비스쿨 테마 케이스·네임택 등
LGU+ 카카오프렌즈 키즈폰 아이위치 확인 등 특화기능 예상

이동통신사들이 키즈 고객 유치에 승부를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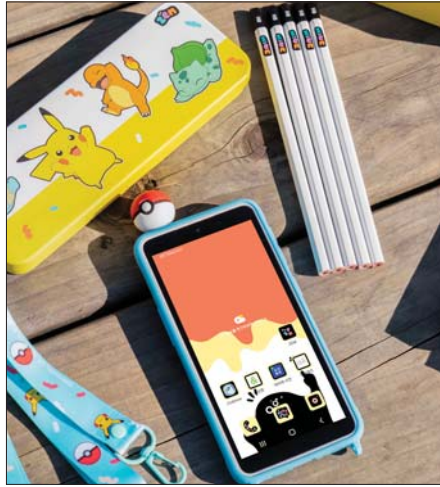
이통사들은 새해 들어 어린이들을 자사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키즈폰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전략도 선보이고 있다. 이통사들이 어린이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은 미래의 잠재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삼성 갤럭시 엑스커버5(XCover5) 기반의 LTE 키즈용 스마트폰 ‘켄 꾸러기 포켓몬 에디션’을 선보였다. 켄 꾸러기 포켓몬 에디션은 포켓몬 디자인의 케이스, 스트랩, 액정보호 필름 등 폰 액세서리 3종과 포켓몬 연필·필통 세트 등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SKT는 또 새학기를 맞아 ‘ZEM 새학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SKT는 우선 2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ZEM 앱에 자녀를 등록한 부모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시디즈 링고의



KT가 지난 13일 출시한 ‘신비 키즈폰3’(왼쪽)과 SKT가 지난 6일 출시한 ‘ZEM 꾸러기 포켓몬 에디션’.



/각사

자, 마이크로 키보드 등 약 1200명에게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두근두근 새학기 선물 아이♥ZEM’ 이벤트를 진행한다. ZEM 앱을 다운받고 가입하기만 해도 ‘튼튼영어’와 제휴를 통해 20만원 상당의 1:1 영어 화상 수업 체험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또 SKT는 B tv ZEM이 독점 제공 중인 ‘튼튼영어’, 초등 학습만화 ‘와이(Why)?’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올해 12월까지 데이터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모바일데이터팩’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펼친다.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SKT의 어린이 전용 휴대폰 요금제인 ‘ZEM 플랜 요금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SKT는 지난해 11월 ZEM 서비스를 국내 대표 키즈 서비스로 확대한다고 발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T와 SKB는 ZEM과 관련해 IPTV 콘텐츠와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아이♥ZEM’ 협력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SKT 관계자는 “앞으로 ZEM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가장 사랑받는 키즈 서비스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12일 ‘신비아파트’ 캐릭터를 적용한 LTE 기반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KT 신비 키즈폰3’을 출시했다. ‘신비 키즈폰3’은 견고한 내구성이 특징인 삼성 갤럭시 XCover5 단말과 ▲신비스쿨 케이스 ▲신비 목걸이 스트랩 ▲신비 네임택 등을 포함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KT 신비 키즈폰3’은 신비아파트 캐릭터들이 학교에 가는 컨셉트인 ‘신비 스쿨’ 테마를 적용해, 초

등학생들이 친근하게 단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영어, 독서, 누리과정, 홀스쿨, 자연탐구 등 영유아 교육 영역 전반에 걸쳐 국내에서 가장 많은 8만여편의 키즈 교육 콘텐츠도 서비스하고 있다. 실제 KT는 최근 오은영 박사와 전문 자문진이 엄선한 ‘감정표현동화’와 더핑크퐁컴퍼니의 ‘베베핀’ 시리즈를 IPTV 중 단독 제공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대표 육아 교육 플랫폼인 키즈랜드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교육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한 2023년형 ‘키즈폰’을 27일 선보인다. 이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러

기드(튼튼한)폰인 ‘엑스커버’(XCover) 시리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기드폰은 산업 현장이나 군사 작전에 사용되던 단말기인데, 내구성이 뛰어나 어린이용 단말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폰에는 장시간 미디어 노출 예방, 유해 콘텐츠 노출 예방, 아이 위치 확인, 칭찬스티커를 통한 습관 형성 등과 같은 특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각인된 액세서리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를 지난 11월 개최된 유아교육전에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전시 기업 중 최대인 270㎡(30개 부스) 규모의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키즈 전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전면 개편한 ‘아이들나라’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인기 유튜브인 헤이지니, 사물공이와 협력해 제작한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를 키즈 전용 OTT 서비스인 ‘아이들나라’에서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새롭게 확대되는 콘텐츠는 헤이지니의 ‘딩동! 퀴즈쇼(40편)’, 사물공이의 ‘찾아라! 곰곰이 카드(100편)’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를 통해 셀럽이나 유행 아이템을 파악하고 콘텐츠 제작에 반영해 아이들이 즐기며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U+tv 화면 속 QR코드로 와이파이 연결

LG유플러스, 업계최초 기능 적용
구형모델 공유기도 상반기 업데이트

LG유플러스는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업계 최초로 U+tv에 QR코드 와이파이(WiFi) 접속 기능을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QR코드 와이파이 접속 기능’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카메라로 와이파이 공유기의 식별값(SSID)과 비밀번호가 연결된 U+tv 화면 속 QR코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홈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하려면 공유기 걸면에 부착된 식별값과 비밀번호를 확인해 입력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벽걸이 TV 뒤쪽에 공유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번거롭다는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QR코드 와이파이 접속



LG유플러스 직원이 U+tv 속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WiFi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기능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UHD2/3/4 또는 사운드바 블랙 셋톱, U+인터넷 와이파이6 공유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리모컨에서 ‘오픈’ 버튼을 눌러 ‘와이파이 정보보기’ 메뉴에서 QR코드 와이파이 접속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와이파이5(구형 AP모델) 공유기도 올해 상반기 내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여러 개의 공유기를 사용하는 대내 와이파이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이지메시 R2(EasyMesh Release 2)를 ‘기가 와이파이6’ 공유기에도 적용했다.

이지메시 R2는 네트워크 관리 및 제어 인증 표준기술로, 여러대의 공유기를 하나로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대내 무선 커버리지를 넓혀준다. 다수의 무선 단말이 연결돼도 안정적으로 무선 성능이 나오도록 원활한 핸드오버를 제공하고, 하나의 공유기에 연결이 집중돼 부하가 가지 않도록 단말을 재배치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조나단 플랫폼’ 우수연구혁신제품 지정

아크릴 개발 원스톱 AI 플랫폼

인공지능 전문 기업 (주)아크릴의 조나단(JONATHAN) 플랫폼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서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아크릴은 2011년 3월 설립돼 현재까지 70여 종에 이르는 자사 브랜드 인공지능 플랫폼 연구 개발에서 보인 전문성, 특허출원, 상표권, GS인증 1등급 확보, 지능정보산업협회 주관, ‘Emergin

g AI+X Top 100’ 선정, 청년 진화 강소기업 선정,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기업 선정, 이노비즈 기업 재선정(AA급), 3년 연속 대한민국 리딩기업 대상, 등으로의 일련의 노력들이 인정받았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된 조나단 플랫폼은 아크릴이 개발한 원스톱 인공지능 개발 운영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유일 AI(인공지능) 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한다. /채윤정 기자

삼성전자 ‘세일페스타’ 제품 완판행진

90만원대 QLED TV 등 선봬

삼성전자 세일페스타가 침체된 가전 시장에 모처럼 훈풍을 불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세일페스타를 통해 소개한 파격가 제품들을 완판하는데 성공했다.

90만원대에 선보인 QLED TV와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및 건조기, 양문형 냉장고 등이다. 그 밖에도 ▲비스포크 냉장고부터 무풍에어컨, 에어드레서, 제트, 큐커,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 ▲Neo QLED, The Se

rif 등 TV ▲스마트 모니터 ▲갤럭시 Z 폴드·Z 플립, 갤럭시 북 등 모바일 기기 ▲하만카돈, JBL 등 오디오 기기 등 총 150여개 모델을 할인가로 판매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벤트 인기도 높다. 지난달 오픈한 ‘사전 알림 이벤트’에는 약 5만8000명이, 1차 릴레이 이벤트 ‘숫자 퀴즈’에는 약 4만4000명이 참여했다.

지난 달 30일에 공개된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 TV CF도 큰 인기를 끌며 이번 행사의 흥행을 견인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과기부, 전파산업 中 제품화 지원나서

내달 24일까지 사업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를 활용한 혁신 제품 발굴과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 접수를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파 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143개의 중소기업 개발 제품들을 발

굴·지원해왔고, 제품 개발 이후 시장에 출시되어 지원금 대비 30~40배의 누적 매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전파 부품, 모듈 등 전파이용에 기반이 되는 전파 기반 제품과 무선충전, IoT 등 전파 응용 기술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파 융복합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신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채윤정 기자

연기금 국내주식 축소 추세 여전 네카오 등 성장·금융株엔 러브콜

연기금 올해 국내주식 1130억 순매도
코스피 순매수 1위 종목 ‘카카오’
KB·신한·하나 등 금융주 집중 매집

국내 증시 ‘큰 손’인 연기금이 새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성장주와 금융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포트폴리오 내 국내 주식 비중 감소 추세는 여전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기관투자자는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1조40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113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가 연기금으로 분류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기간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은 카카오다. 103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네이버(349억원)는 순매수 7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두 종목 모두 지난해 한 해 동안 50% 넘게 급락했으나, 올해 들어 각각 15.25%, 10.42%씩 상승했다. 미국 연

〈연기금 코스피 순매수 상위 10종목〉

종목명	순매수 금액
카카오	1039억
롯데케미칼	504억
KB금융	441억
SK하이닉스	409억
삼성전기	394억
포스코케미칼	354억
네이버	349억
신한지주	348억
하나금융지주	334억
LG전자	297억

기간 : 1월 2일~20일. 단위 : 원 /한국거래소

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나스닥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커진 모양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추가 하락이 없다면 오는 3월 양회 이전까지는 중국 플랫폼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가 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

상한다”며 “이를 통한 국내 플랫폼 업체의 직·간접적인 수혜는 전무하나 평균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B금융(441억원), 신한지주(348억원), 하나금융지주(334억원) 등 금융주도 순매수했다.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한지주는 자본비율을 12%대로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행동주의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는 공개주주서한을 보내며 ‘은행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부터 은행주 중심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크게 형성됐다”며 “과도하게 저평가된 주가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과 자본시장의 요구가 맞물려 은행주 주가는 연초 이후 10~28%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얼어붙은 회사채… 전년대비 수요예측 11조 ↓

금리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 악재 영향

지난해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가 전년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공모회사채 수요예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규모는 322건, 28조4000억원이 진행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176건(35.3%), 액수는 11조1000억원(28.0%) 감소했다. 경쟁률은 230.5%로 전년(398.8%)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금투협은 “한·미 금리격차 축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이 연 7회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발행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기관의 평가손실 우려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발행수요와 기관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 등 연이은 악재의 여파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기를 이연하거나 은행대출,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 경로를 선회한 것도 수요예측 규모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12조2000억원, 2분기 8조2000억원, 3분기 5조6000억원, 4분기 2조4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11월 말부터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및 정부의 시장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우

〈연도별 회사채 수요예측 추이〉

구분	21년	22년
수요예측 종목수	498	322
수요예측 금액	39.4	28.4
수요예측 참여금액	157.3	65.4
수요예측 경쟁률	398.8%	230.5%

단위 : 조원

/금융투자협회

량채를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재개되고 높은 참여율을 달성했다.

금투협은 지난해 수요예측 특징으로 양극화 심화와 미매각 증가를 꼽았다.

등급별 비중은 AA등급 이상 우량채의 경우 70.8%에서 77.6%로 증가해 주축을 이룬 반면, A등급과 BBB등급 모두 감소했다.

또 금리인상기 평가손실을 우려한 기관 참여가 저조해 52건, 2조6000억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미매각 금액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매각율은 6.7%로 전년(1.1%) 대비 5.6%p 상승했다.

높은 신용도의 공사채도 고금리 발행을 이어가자 지난해 회사채의 결정금리가 상승했고, 단기물 선호도가 높아지며 평균 만기도 3.7년에 그쳤다.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36%를 증권사가 차지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기 위한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다. 이어 자산운용사(31%), 연기금(15%), 보험사(10%), 은행(8%) 등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금투업계, 토큰 新투자처 주목… 발행·유통 속도

신한 하반기 STO 플랫폼 서비스 예정
KB SK C&C 디지털자산 협업
키움 한국정보인증 등 사업협력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공식 허용하면서 증권형 토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증권사들은 기존 유통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 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토큰 발행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안건을 의결했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은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나서고 있으며 나머지 증권사들도 여기에 가세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7월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담 조직인 블록체인부를 출범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왔는데 올 하반기에 STO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2월 합작 법인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STO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위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자산 협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을 개발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25일 한국정보인증, 페어스퀘어랩 등과 토큰 증권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희재 키움증권 리테일총괄본부장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정보인증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토큰 증권 분야로

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자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SK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도 STO 및 조각투자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STO가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STO 산업이 본격화하려면 무엇보다 증권형 토큰의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유통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와 STO를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STO의 장점으로 꼽히는 ‘거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STO 산업의 업사이드는 비유동성 자산 토큰화로 새로 생겨나는 시장 규모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운용 “엘리버드펀드로 회복장 대비하세요”

예측 어려운 횡보구간서 강점

신한자산운용의 대표적인 국내주식형 펀드 ‘신한엘리버드펀드’가 최근 1개월 수익 6.75%로 코스피를 3.38%포인트(p) 앞서고 있다.

25일 신한자산운용은 미국물가상승 둔화와 통화긴축 완화가 불리울 회복장세에 주목할 투자상품으로 ‘신한엘리버드펀드’를 추천했다.

신한엘리버드펀드는 2005년 출시돼 17년 이상 운용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의 대표적인 국내주식형 펀드로 선제적 리서치를 통해 주도주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다. 2005년 설정 이

후 310.49%의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동일기간 코스피지수의 상승률(95.99%)을 3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최근 1개월 수익은 6.75%로 코스피를 3.38%p 앞섰고, 3개월 수익률에서도 13.07%를 기록해 장·단기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 펀드는 최근처럼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고, 명확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횡보구간에서 강점을 보인다. 선제적인 기업분석을 통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차기주도주를 선점해 투자하고 적정가치에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박미경 기자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방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

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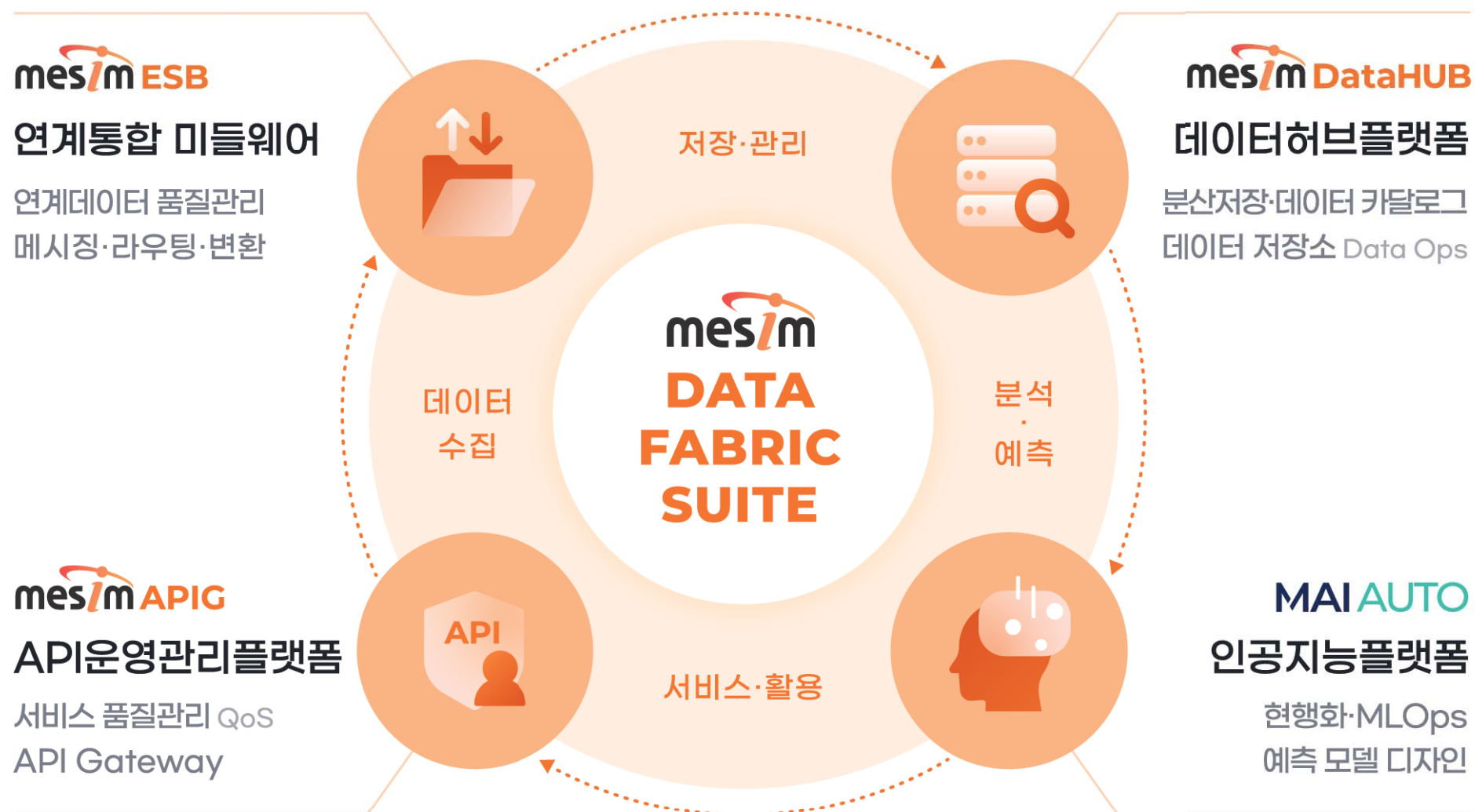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환 기자 kdh@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규제 빗장 풀린 부동산시장 뚝뚝한 한 채 마련해 볼까

정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풀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지 관심이다. 오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최소 6개월, 최대 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2~5년 실거주 의무 규정도 폐지되고, 바뀐 규정을 과거 분양 단지까지 모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지와 차별성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유투이미지

청주 도심 생활권으로 삶의 질 쑥… 전매 가능

GS건설

청주 북대자이 더 스카이

GS건설은 오는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상업시설용지 C1블록)에 들어서는 '북대자이 더 스카이' 84~103㎡ 715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41가구 ▲84㎡B 86가구 ▲84㎡C 176가구 ▲84㎡D 88가구 ▲103㎡A 176가구 ▲103㎡B 48가구다.

북대자이 더스카이는 청주시의 대표 생활권으로 손꼽히는 북대동에 들어서는 만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지웰시티몰 및 충북대학교 병원이 가까이 있고, 청주 예술의전당과 청주 아트홀, CGV와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형성돼 있다. 또한, 신율봉공원, 서원 어린이공원, 북대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도보권에 있다.

교통여건으로 36번 국도와 청주제2순환로가 인접해 있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와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 마련될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언'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문화교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



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채로운 입주인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자이(Xi)의 커뮤니티통합 서비스인 '자이안 비'가 적용된다.

단지 내 작은 도서관(북카페)에서는 국내 대형 서점이 큐레이션을 인기도서 및 스테디셀러로 채워질 예정이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자이만의 특별한 블렌드 및 스페셜티 커피와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다.

북대자이 더스카이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청주의 민간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제한도 없다. (1660-1533)

풍성한 신도시 인프라… 호수공원·동탄역 지척

DL이앤씨

화성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DL이앤씨(DL E&C)는 오는 2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99㎡ 706가구 ▲115㎡ 94가구 등 800가구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특별 계획구역 7곳 중 마지막 남은 주거지구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에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주거 플랫폼인 'C2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되며 스카이라운지와 패밀리 시네마, 키즈체육관 등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적용된다.

완성형 신도시로 꼽히는 동탄2신도시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 면적이 넓다. 특히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효제봉 자락에 위치해 있고 신리천과 신리



제2저수지, 왕배산3호공원 등도 인접해 또 신주거문화타운 내 초·중·고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단지와 인접한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이미 조성된 남동탄의 호수공원, 상업시설, 학원가 등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신도시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진다. (1522-7002)

KTX·SRT 역세권… 지역 첫 1군 브랜드아파트

대우건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우건설은 오는 3월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84~110㎡ 707가구를 분양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22가구 ▲84㎡B 26가구 ▲84㎡C 28가구 ▲84㎡D 24가구 ▲84㎡E 277가구 ▲110㎡A 130가구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KTX·SRT가 모두 정차하는 정읍역 역세권 입지가 단연 돋보인다. 이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 40분, 수서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다. 편의시설로 롯데마트, 한국병원, 아산병원, 정읍경찰서(예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자리한다.

차별화된 설계로 전 세대 4베이(Bay) 구조에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적용된다. 대형 알파룸, 팬트리가 들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역시 가능하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입주인 커뮤니티 시설로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입주인 전용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가 설계되는 것을 비롯해 휘트니스, GX룸 등이 들어선다.



정읍지역은 만 19세 이상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세대원·세대주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없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정읍에서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29층 높이라는 상징성에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설계가 더해져 정읍을 대표하는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실수요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주택 오픈에 앞서 정읍 어린이교통공원 인근인 정읍시 상동에서 설날 연휴 이후인 25일부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1660-1007)

청주 전역 이동 수월… 전세대 4베이 남향구조

동일토건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동일토건은 오는 2월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분양에 나선다.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개신동)에 들어서며 전체 800가구로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301가구 ▲84㎡B 83가구 ▲84㎡C 83가구 ▲112㎡ 333가구다.

서원구는 청주에서 주거선호도가 높고, 개신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다. 우선 단지와 인접한 서부로, 1·2순환로 이용 시 청주 전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며,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탄탄하다.

충북대와 접해 '캠퍼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충북대병원이 단지 옆에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며, 시민 누구나 충북대 내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체육활동도 가능하다.

단지 인근 청주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케미칼 등 대기업 다수가 입주했고, 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방사광가속



기 개발(예정) 등 산업단지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하이빌은 '지상에 주차장 없는 아파트', '면진설계 아파트'를 선보이는 등 고객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에도 보기 드문 전세대 4베이(BAY) 구조에 판상형 남향위주로 배치, 100% 지하 주차장 설계 등 우수한 상품으로 선보여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비규제지역이어서 분양 부담도 덜하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건보주택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원에 들어선다.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가방 제작… 친환경 앞장서는 기업들

행사 현수막 소각, 환경 문제 야기
CU, ‘업사이클링 프로세스’ 도입
롯데마트, 일회용 종이 전단지 중단

유통기업들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홍보물에 대해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CU는 24일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해 행사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해 새 상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5대 행사로 꼽는 설, 추석,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각 점포에 배부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화학 염료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행사 종료 후 폐기돼 그대로 소각됐다.



CU가 빼빼로데이 당시 이용하고 폐기한 현수막을 이용해 제작한 미니백의 모습. /BGF리테일

CU는 앞으로 현수막으로 인한 자원 소모 문제 해결을 위해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 큐클리프와 함께 행사 현수막을 수거해 미니백, 토트백 등으로 만

드는 한편, 제작 단계에서부터 폐페트병에서 뽑은 재활용 섬유 ‘리젠(regen)’ 원단으로 현수막을 만들기로 했다.

업사이클링 프로세스의 효용성 확인을 위해 CU는 지난해 빼빼로데이에 서울지역 100여 곳 점포에 리젠 현수막을 배부한 후 회수해 업사이클링을 시도했다. 첫 시범 작품은 미니백과 토트백이 됐다.

한윤범 BGF리테일 경영기획팀장은 “쉽게 버려지고 있는 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폐현수막이 나무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프로세스를 고안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 가능 녹색경영을 실천하며 업계를 이끌어가는 ESG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일회용 종

이 전단지 제작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형마트에서 종이 전단은 매주 행사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쇼핑 시 한번 보고 버려지는 것은 물론 배부되지 못한 남은 전단은 전량 폐기돼 자원 낭비를 야기했다.

롯데마트는 종이 전단 제작을 완전히 중단하고 모바일 전단을 통해 행사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모바일 전단은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롯데마트GO’ 또는 매장 내 고지된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해당 주치의 새로운 소식과 행사 내용이 업로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당연하게 여겼던 홍보수단들에 대해 업계 전반이 되돌아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디지털전략팀 등 신설… 소진공 ‘조직개편’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전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정책 이행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 조직을 개편했다.

소진공은 소비촉제 개최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디지털전환 지원 가속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팀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조직 효율화 측면에서 부서 신설이 아닌 팀으로 편성했다.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 구성에서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체제로 변경됐다.

신설한 팀은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과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이다.

또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이다.

소진공은 시장상권본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글로벌 대표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활성화 집중지원에 나선다. 상권육성실을 지역상권실로 개편해 지역상권 회복,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등 상권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도 2월 1일부로 시행된다. 소진공은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대외협력 강화 등 고객 우선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라시멘트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라시멘트

한라시멘트, 신입사원 공채 규모 확대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

한라시멘트가 대외적 사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확대했다.

한라시멘트는 통상적으로 결원에 맞춰 한자리에 그쳤던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 말 14명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입사와 함께 진행하는 신규 입사자 입문 교육인 인덕션(Induction) 프로그램도 예년보다 확대해 더욱

다채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2월6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이뤄질 인덕션 프로그램은 ▲회사 및 시스템 교육 ▲주요 제조현장 답사 ▲팀별 미션 발표 ▲문화 체험 등으로 전국 주요 현장을 오가며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모회사인 아세아시멘트와 신규 입사자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양사의 공채 입사자들이 함께 교육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김승호 기자

정부 협업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개최

도전! K-스타트업… 11개 부처 협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올해에도 열린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후 협업부처 및 예선리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매년 평균 5000팀 이상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도전! K-스타트업은 26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창업자들(200개팀)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린다.

10월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개최한다. 이때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9개월간의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왕중왕전에서는 총 상금 15억원(팀당 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참가자 격이 강화되고 예선 리그를 확대·운영한다.

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자간 형평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했다. 투자유치 실적도 기존 누적 50억원 이내에서 누적 3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종전 10개 리그였던 예선리그는 11개로 늘어난다. 공공연구성과기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의 연구자 리그를 신설·운영한다.

또 교육부 주관의 학생리그 내에 유학생 트랙이 운영된다. 이는 중기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의 후속조치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쇼핑하고 명품백 받으세요”

홈쇼핑이 경품 행사를 통해 10명에게 명품백을 증정한다.

홈쇼핑은 오는 2월5일까지 명품백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첨 대상은 행사 기간 내 TV, 모바일 등 홈쇼핑 전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다. 상품 구입 및 결제 완료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2월16일이다.

제공 예정 경품은 구찌 미니 버킷백으로 2019년 프리폴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구찌의 대표적인 인기 아이템이다. 특히 복주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이 이채롭다.

홈쇼핑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고객님들의 복 받는 쇼핑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며 “홈쇼핑은 해당 경품행사 기간 동안 다이어트, 건강식품, 졸업·입학 시즌 선물용 노트북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2023년 쇼핑 체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2개 필터 탑재’ 강력한 공청기 출시

‘제스트에어’, 66㎡ 공간에 적합

청호나이스가 2개의 필터시스템을 제품 양쪽에 탑재해 더욱 강력하게 흡입하고 빠르게 청정하는 공기청정기 ‘제스트에어’ (사진)를 출시했다.

2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제스트에어’는 66㎡(약 20평형) 제품으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프리필터와 복합필터(집진필터+탈취필터)가 적용된 3단계 필터시스템이 제품 양쪽 흡입구에 각각 탑재돼 오염된 공기를 효율적으로 청정하는 더블필터시스템이 특징이다. 청정방식 역시 2개의 흡입구로 설계돼 실내에 퍼져있는 오염물질을 빠르게 흡입하고 신선한 공



기를 상단의 토출부로 넓게 뿜어 실내 공기를 신속하게 정화시켜준다.

‘제스트에어’는 듀얼센서를 적용해 실내 공기질을 3단계의 색상변화(좋음·나쁨·매우나쁨, 블루·오렌지·레드)로 표시해 실내먼지 상태와 가스오염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화시켜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려 줌으로써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자소서 폐지에 대학 양극화 우려… 개별고사 생길수도”

교육계,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 검토

“대학 입장에서 수시 중요도 떨어져
수시로 3년과정 평가방식 효과적”

올해 대입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평가방식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다른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절대평가와 결합 시 대학 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4학년도부터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될 고교 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사했다. 교육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는 고교 학점제 보완 방안으로, 고교 내신을현행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대로 도입된다면 2028년 대입에서는 또 한 번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로 도입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상위권의 경우, 수능 비중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중하위권의 경우 내신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주요 대학들은 수능을 통한 정시 선호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고, 상위권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간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학 위주로 대학별 개별 고사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정시 중심의 대학 진학보다는 수시로 3년의 과정을 평가해 주는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살리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며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교사들이 평가한 내신 점수의 기준을 검증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소서의 유무가 절대평가에서 내신 신뢰도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설치되는 평가 지원 센터 등에서 교사들이 채점한 샘플링을 검토해 학교마다 내신 기준을 균등하게 관리해 주는 체계를 제안했다. A학교에서 맞은 A등급과 B학교에서 받은 A등급의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 주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절정인 만큼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처가 절실하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만에 수능 응시생 최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지방 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2년 뒤에는 반등했던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미달 위기가 일시적으로 극복되지만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곧바로 돌아온다. 특히 미래 수험생이 될 초등 학생의 수는 현재부터도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용하는 ‘학교 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05곳에 달한다. 이 중 17개 학교는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신입생이 없는 대위기를 겪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각 지역별 학생수 변화에 따라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 등과 연계된 선제적 공동대응 필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은 아직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대학에 산업단지 조성… 혁신거점 만든다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교육부 등 3개부처, 대학 2곳 신규선정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 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7개 대학은 강원대, 한남대, 한

양대 ERICA,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된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은 기

존보다 강화된다.

공모 접수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26일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학교돌봄터 2호점 개소식이 열린 수내초등학교. /성남시

인천 등 5개 교육청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특별교부금 600억 지원
17개 교육청에 120여명 배치

교육부가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

지난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18일까지 시범교육청 공모기간을 거친 교육부는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새 학기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 내용과 2023년 추진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는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 지정교실을 개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토요일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와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배치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고려대 ‘대학 혁신 연합포럼’ 개최

경희·국민대 등 8개대학 공동 주최

고려대학교는 26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SK미래관 최정현홀에서 ‘지역협력과 대학 혁신 사례’라는 주제로 ‘서울흥릉지역 대학 혁신 연합포럼’을 개최한다.

제12회 KU 혁신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대학 본연의 역할과 책무 확대라는 시대적 소명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대 대학정책연구원과 혁신지원

사업운영팀이 주관하고, 고려대(서울·세종캠퍼스),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8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흥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흥릉포럼 소속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진행된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혁신적인 공유협력체제 모델 창출을 창출하고, 대학 간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 공유의 일환이다.

/신하은 기자

권혁성 삼육대 재무실과장 교육부장관 표창 받아

삼육대학교는 권혁성 재무실 과장이 ‘국민교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29년간 삼육대 총무과, 전산교육원, 기획처, 입학관리본부, 정보전산원, 대외협력처 등에서 근무하며 전산교육지원, 네트워크망 구축 운영, 학생홍보대사단 운영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사무처와 재무실에서 입학 및 계약 구매업무 등을 맡아, 투명한 계약과 공정한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대학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신하은 기자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Ö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 1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쏩!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경북도, 지방 소멸 막는다… 5년간 300개 어촌에 3조 투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개지구 선정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대상지에 자문·컨설팅 지원

경상북도는 지난 1월 19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유형1 1지구, 유형2 4지구, 유형3 4지구 총 9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예산 등 총 9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

조원을 투자한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매년 60개소씩 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시작해 지난 달 15일 예비계획 제출까지 도와 시군의 철저한 공모 준비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유형1 1지구를 포함 최종 9지구가 선정됐다.

특히, 도내 어항이 전국에서 5.7% 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도 올해 총 65지구 선정에 300억원 규모의 유형1 1지구를 포함한 14%인 9지구

가 선정돼 사업지구 및 사업비규모 면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유형1 1지구는 영덕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4지구는 포항 「이가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외 1개소, 경주 「전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울진 「골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4지구는 포항 「조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외 1개소, 경주 「하서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울진 「금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이다.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포항 4지구 300억원, 경주 2지구 150억원, 영덕 1지구 300억원, 울진 사업비 150억

원이다. 또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하고자 올해 추경예산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3억원, 용역자문비 1억원을 신청·반영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추진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어항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연안 5개 시군 24개소 2178억원을 투자해 어촌·어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 신청

경남 진주시는 27일부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특히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차보전율을 0.5%P 상향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에만 제한됐던 용자대 상업체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1회에 한해 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 상반기 자금규모는 500억원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울주군, 안정적 영농정착 돕는다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 비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울주(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천시는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84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

영암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의 신청을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남)=김용환 기자 jiiacecom@



순천 그린웨이 도시숲

도시숲 조성 377억 투입

전남도 사업비 '전국 1위'

도시열섬 등 기후위기 대응
조성방법 등 교육 이달 추진

전남도가 올해 주민 생활권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 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9% 낮추고 1ha의 숲은 경유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 조성 대상 지역은 '여수 국가·울촌산단 4.5ha', '순천 해룡산단 등 2.9ha', '광양 중마지구 등 7ha', '구례 양정축산단지 1ha', '보성 조성농공단지 0.1ha',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0.2ha', '해남 구성지구 2ha', '무안 남악철도 등 4ha' 등이다.

전남도는 수종 선택과 식재 방법 등에 전문가 자문을 얻는 등 사업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월 말에는 산림청에 의뢰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대상지 선정 심사 절차와 조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가족형 축제 '안동 암산얼음축제' 개막

안동시, 각종 체험프로그램 마련

경북 대표 가족형 겨울놀이 축제인 '2023 암산얼음축제'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안동시 남후면 암산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안겨줄 이번 안동암산얼음축제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찾아가나다.

얼음썰매, 빙어낚시, 민속놀이, 놀

이기구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겨울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얼음 조각과 얼음빙벽 등 포토존, 아이스 컬링 및 썰매타기 대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도 축제기간 내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1월 28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남후면 전통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 발전하는 안동의 희망 메시지를 선포하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캐릭터로 꾸민 '놀이단 寒(한) 식구'의 공연 등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순항'

동천 뱃길 운행 등 마무리

2023정원박람회 개막 70여 일을 앞두고 순천시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4월부터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일상을 어떻게 바꿔내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내고자 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현재 80% 공정률로,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며 2월까지 모든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 화훼연출과 식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천 뱃길 운행을 위한 준설 작업은 마무리 됐으며 박람회장과 연결하는 수문도 새로 정비했다.

'애기 궁뎅이'로 불리는 두 봉우리 사이 붉게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저절

로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 '노을정원'은 전체적인 조형작업과 큰 나무의 식재가 완료됐으며 잔디식재 및 화훼 연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사뭇물에 발을 담그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울길광장'도 이사전의 맑은 물이 정원 안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관로 연결 공사가 완료되면서 통수까지 확인한 상태다.

특히 국가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는 상·하수 기반시설을 모두 완료한 데 이어 최고급 삼나무로 이어지는 캐빈하우스 35동이 제작되고 있다.

'국가정원식물원'도 철골공사와 난방 시스템이 완료돼 본격적인 식재 작업에 돌입했다. 국가정원식물원은 순천의 산수를 표현한 입체적인 식물 전시공간으로 아열대 정원과 열대과수원 등을 한 공간에 연출하게 된다.

/순천(전남)=양수영 기자

경북교육청, 학생 위기대응능력 강화

안전교육 용품 구입지 30억 지원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생활형 안전사고와 각종 재난 및 위험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안전교육 용품 구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모든 학교가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험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2023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는 불의의 사고 시 대처 능력 향상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안전을 포함한 실습·체험형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급 학교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7대 영역 안전교육인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지난해 안전한 등하굣길 캠페인하고 있는 임종식 교육감 모습.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 교육에 필요한 학생 안전 교육용품을 자율적으로 구입해 피부로 느끼는 체험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지원을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당·칼로리 부담 덜고 맛있게... ‘제로 열풍’ 더 뜨거워진다

건강한 食생활

〈中〉저열량·저당 식품료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 확산
주류 등 제로 브랜드 라인업 증가

롯데칠성음료 밀키스 등 신제품
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 리뉴얼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등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줄인 제과류와 음료·주류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식품업계는 설탕 대신 단맛은 내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은 감미료를 사용해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도 허물고 있다.

제과업계에서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5월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를 론칭하고 발빠르게 제품을 선보였다.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말티톨을 사용한 제로 다크 카카오 케익, 제로 초콜릿 칩 쿠키, 제로 크런치 초코볼, 젤리 4종, 빙과 제품 등이 있다.

말티톨의 경우 설탕의 60~70% 정도



롯데제과는 지난해 5월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를 론칭했다.

/롯데제과

당도지만 체내 흡수가 어려워 저칼로리 감미료로 꼽힌다. 실제 제로 후르츠젤리와 제로 아이스콜라는 칼로리가 일반 제품에 비해 각각 25%, 30% 가량 낮다. 헬시플레이어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제로 브랜드 매출액만 약 163억원에 달한다.

‘제로’가 붙으면 잘팔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해 무가당 요거트(185%), 글루텐 프리(106%), 무알코올 맥주(94%) 등 첨가물을 덜어낸 식품 판매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코카콜라는 최근 무설탕 제로 칼로리 음료 ‘환타 제로 포도향’을 출시했다.

저칼로리 음료 소비가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내놓은 신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상반기 ‘밀키스’와 ‘2% 부족할 때 아쿠아’ 제로 칼로리 제품을 출시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홍차음료 ‘실론티 레몬 제로’를 새로 선보인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16년 903억원에서 2018년 1155억원, 2020년 1319억원으로 커졌다. 2021년에는 2189억원을 기록했다. 탄산음료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제로’ 상품군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류 시장에도 ‘제로’ 바람이 불고 있



무설탕 소주 ‘새로’

/롯데칠성음료

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9월 16년만에 소주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당을 사용하지 않은 무설탕 소주로 출시 한달만에 1200만병, 석달 만에 2700만병의 판매고를 세웠다.

하이트진로는 자사 소주 제품인 진로이즈백을 리뉴얼해 내놨다. 기존과 달리 당류를 사용하지 않아 제품 라벨의 왼쪽 아래에 ‘제로 슈거(Zero Sugar)’마크를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며 “술을 마시면서 ‘제로 슈거’로 건강까지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CU는 ‘40240 독도소주 제로 슈거’를 판매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무가당 주류 매출은 처음 출시된 지난해 9월 이후 매달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매출은 11월 대비 89.7% 늘었다. 올해 들어 판매량은 이미 지난달 판매 수량을 넘겼다. 남성보다는 여성 구매 비중이 높았고, 세대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20대가 23%, 30대가 36% 20·30세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지난해 CU의 무가당 음료 매출도 전년 대비 96.8% 늘었다. 같은기간 무알코올 맥주의 매출신장률은 70.3%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이 다이어트의 적으로 인식되면서 식품료 시장에서 ‘제로 슈거’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로 열풍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열량·저당 식품료 관심도는 2020년 68.6%에서 2지나해 79.9%로 커졌다. 저당, 저칼로리 등의 대체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를 찾겠다는 응답도 78%로 높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푸드,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 오픈

베키아에누보에 베러미트 접목
캐주얼다이닝 콘셉트 정규매장

신세계푸드가 대안육 ‘베러미트(Better Meat)’를 경험할 수 있는 정규매장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를 열고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신세계푸드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SSG푸드마켓 지하 1층에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를 오픈하고 대안육 ‘베러미트’를 활용한 메뉴를 비롯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베키아에누보’의 인기 메뉴인 파스타, 파니니, 샐러드 등을 비롯해 육류 대신 ‘베러미트’를 접목해 재해석한 메뉴, 100%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메뉴까지 20여종의 웨스턴 스타일의 메뉴를 트렌드라고 감각적인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오토(귀리) 음료, 비건 치즈, 스프레드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대안식품들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선보인 ‘베러미트’



청담동 SSG푸드마켓 지하 1층에 문을 연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 전경

/신세계푸드

트’ 식물성 런천 캔햄을 비롯해 샌드위치용 슬라이스 햄인 콜드컷과 미트볼 등 다양한 종류의 ‘베러미트’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는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울 압구정동에서 식물성 정육 델리테마로 운영했던 콘셉트스토어 ‘더 베러’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픈하는 것이다. ‘더 베러’는 운영기간 동안 누적 방

문객이 1만3000여명을 넘어서며 대안육을 직접 경험해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재오픈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자사의 외식 브랜드로 운영해오던 프리미엄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 청담점에 ‘베러미트’를 접목한 캐주얼 다이닝 콘셉트의 정규매장 ‘더 베러 베키아에누보’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신원선 기자

종근당건강, ‘미스터트롯2’ 제작 지원

유산균 브랜드 ‘락토핏’ 협찬사 참여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종근당건강의 유산균 브랜드 ‘락토핏’이 TV조선 ‘미스터트롯2’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락토핏은 ‘미스터트롯2’의 협찬사로 참여하며 프리미엄 신제품 ‘락토핏 솔루션 1&2’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락토핏 솔루션 1&2는 장 유형 맞춤형 유산균 라인으로 락토핏 솔루션1은 둔감한 장, 락토핏 솔루션2는 예민한 장에 특화됐다. 특히 락토핏 솔루션2는 평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평소 설사가 잦아 불편을 겪는 예민한 장유형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유산균이다.

세계 유수의 원료사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미국 유산균 전



종근당건강 락토핏 ‘락토핏 솔루션 1&2’

/종근당건강

문기업 UAS Labs사의 프리미엄 균주 ‘DDS-1’과 ‘UABla-12’를 사용했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유산균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만큼 예민한 장이 고민인 고객에게 적합하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메가MGC커피 ‘타임 투 헬시’ 로우스펙 옵션 강화

오토 밀크, 디카페인 추가

메가MGC커피(메가커피)가건강토핑 옵션 ‘타임 투 헬시’에 오토 밀크와 디카페인을 새롭게 추가하며 로우스펙 옵션 강화를 이어간다.

이로써 타임 투 헬시 토핑 옵션은 건강한 단 맛을 내는 ‘스테비아’, 저칼로리의 식물성 음료인 ‘아몬드 밀크’, 당을 낮춘 바닐라 시럽 ‘라이트 바닐라 시럽’,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토 밀크’, 카페인 부담을 덜어낸 ‘디카페인’ 5종으로 선택지가 늘었다.

이번에 선보인 ‘오토 밀크’는 귀리 특유의 단백질과 달달함이 고스란히 스며든 옵션이다.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이 낮아 다이어트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카페인’은 카페인에 민감한 임산부나 청소년 등 디카페인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요청으로 출시했다. 카페인은 덜어내고 메가MGC커피 고유의 커피 맛은 고스란히 살려 건강을 위해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옵션이다.

/신원선기자

빙그레,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인상

메로나·비비빅 등 2월부터 순차 인상

빙그레가 경영압박의 심화로 인해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소매점 기준 메로나·비비빅을 비롯한 바 아이스크림 7종과 슈퍼콘 등의 아이스크림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판

매될 전망이다.

빙그레는 “유가공품 등의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제조원가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원가 부담을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경영 압박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올가홀푸드

‘무가당 그레놀라’ 3종 출시

풀무원 계열의 로하스(LOHAS) 프레시마켓 브랜드 ‘올가홀푸드’가 ‘무가당 그레놀라’ 3종을 출시했다.

‘무가당 그레놀라’ 3종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1회 제공량(30g)당 당 함량을 1g 미만으로 줄여 당에 대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이다.

무가당 그레놀라는 오리지널, 너츠, 카카오3가지 맛으로 구상돼 기호에 맞게 원하는 맛을 골라 섭취할 수 있다./신원선 기자

“마스크 안녕”... 립스틱 등 화장품 인기로 뷰티업계 ‘화색’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앞두고
화장품 관련 행사·이벤트 붐물
틴트 등 색조 화장품 매출 신장

百, 팝업스토어·메이크업쇼 선봬
e커머스, 특가·프로모션 총공세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화장품·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상품은 방역 규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동안은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며 매출이 건잡을 수 없이 줄었다. 대신 2021년 11월 있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등 방역 규제 해제가 예고되면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정부가 3년 여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크다.

25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유통업계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겨냥한 화장품 관련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다. 해제 논의와 함께 먼저 행사를 연 곳들 또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유통업계는 방역규제 해제에 따른 최대 수혜 상품으로 화장품을 꼽는다. 실



뷰티 관련 상품은 방역 규제 해제 논의가 나올 때 마다 큰 폭으로 매출이 뛰었다. 3년만에 마스크 완전 해제가 예고되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화장품 매장. /뉴스

제로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자 바로 화장품 매출이 뛰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방역 규제가 해제된 직후인 4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간 화장품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의 같은 기간 분석한 매출 자료에서는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56% 오른 것으로 확인

됐는데 특히 틴트 매출은 94% 신장했다. 웨이딩(72%)과 블러셔(66%)도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올리브영 측은 자료를 공개하며 얼굴에 음영을 주거나 컬러를 입히는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다시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테스트 사용까지 완전히 자유로워지면서 팝업스토어와 메이크업쇼 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29일까지 본점 지하 1층에서 입생로랑의 신제품 뉴 벨벳 틴

트를 선보이는 대형 팝업스토어를 연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메이크업쇼, 개인 서비스, 포토 부스 등을 연다.

현대백화점은 30일까지 더현대 서울 1층에서 나스 메이크업 쇼를 열고 다음 달 9~12일에는 디올 화장품 팝업스토어를 연다.

e커머스 업계는 뷰티 관련 할인전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G마켓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요일특가전 ‘데이마켓’ 프로모션에서 ‘패션/뷰티’ 카테고리를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배정했다. 11번가 또한 각 브랜드별 베스트셀러를 모은 ‘럭셔리뷰티’ 테마를 통해 화장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진작 행사를 준비해 마친 곳들도 있다. 마스크 해제 논의의 소식이 나온 후 각 e커머스 기업들은 앞다퉈 기획전을 열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롯데온은 9일부터 일주일간 프리미엄 뷰티 전문관 온앤더뷰티에서 ‘설 특집 올 어바웃 뷰티’ 행사를 열었다. SS G닷컴도 같은 기간 카테고리 특화프로모션 ‘뷰티 썬세일’을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온은 해제 논의 이후 전년 대비 베이스 화장품 매출이 40%, 색조 화장품 매출이 30%, 남성 화장품이 70% 증가했다.

SSG닷컴은 뷰티 썬세일에서 행사 시작 첫 날과 이튿날 신세계그룹 전사 행사인 ‘썬데이’ 뷰티 매출을 넘겼고, 행사 전체 기간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누적 판매량 역시 20만여개를 기록해 1분당 20여개의 상품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3년 만에 돌아온 노 마스크인 만큼 화려한 색조 화장품 인기가 높다”며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는 만큼 선케어 상품 수요도 큰 편”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모델들이 25일 서울시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상온·냉장·냉동 등을 총망라한 간편식 할인전 ‘다이닝 스트리트 워크’ 행사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간편식 할인 ‘다이닝 스트리트 워크’

홈플러스가 2월 1일까지 상온·냉장·냉동 등 간편식을 총망라한 할인전 ‘다이닝 스트리트 워크’를 연다.

연중 전개하는 ‘2023 위풍당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 가격에 선보인다.

냉장밀키트 50여 종을 1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하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두, 피자, 치킨 등 냉동 간식/간편식 9종은 1+1로 만나볼 수 있다.

샐러드 전품목은 2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행사카드 구매시 한라봉, 밀감, 체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교촌치킨, 협동조리로봇 가맹점 시범운영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 및 탈유 공정에 대한 협동 조리로봇 자동화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가맹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협동 조리로봇이 도입된 가맹점은 교촌치킨 다산신도시1호점(경기도 남양주시), 상일점(서울시 강동구), 한양대점(서울시 성동구) 등 3곳이다.

교촌은 가맹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치킨 조리 로봇 개발에 착수해 왔다. 1년여 간의 개발 과정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약 2달간의 직영점 테스트를 거친 후 가맹점 도입이 진행됐다.

이번 협동 조리로봇은 교촌치킨 전용으로 개발돼 교촌치킨 특유의 튀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1번가 라방 플랫폼, 입점 셀러들에 개방

‘LIVE11’ 오픈 라이브 서비스 시작
라이브 통계 등 상세 리포트 제공

11번가가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오픈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11번가는 25일 셀러 누구나 LIVE11에서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오픈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IVE11은 11번가의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11번가와 협의한 셀러, 브랜드를 중심으로 방송이 자체 기획됐으나 앞으로는 11번가에 입점한 개인 셀러들도 편하게 LIVE11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LIVE11은 그간 하루 4~6회 진행해온 기획 방송에 셀러들의 오픈 라이브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LIVE11 탭 하단에 ‘푸드채널’, ‘패션채널’, ‘IT채널’, ‘키즈채널’ 등 각 카테고리별 큐레이션 영역이 신설되는데, 최근 조회, 구매,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기반으로 고객별 관심 방송을 개인화 추천해준다. LIVE11의 자체 예능형



11번가는 개인 셀러에게도 라이브방송 플랫폼 LIVE11을 개방한다. /11번가

콘텐츠도 지속 운영한다.

LIVE11을 이용하는 셀러는 별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방송 등록 및 운영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스트리밍 지연시간을 최대 85%까지 줄인 초저지연(ultra-low latency)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으며 LIVE11의 기능들을 활용해 많은 고객들을 모을 수 있다. 라이브 종료 후에도 라이브 통계를 포함한 상세 리포트를 통해 판매 활성화에 도움을 얻

을 수 있다.

LIVE11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셀러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방송을 등록해 진행할 수 있다. 방송 전 사전 예고 페이지와 방송 배너, 그리고 방송 중 이펙트 효과 등을 모두 원하는 대로 꾸미고 설정할 수 있다.

11번가는 LIVE11의 운영 노하우와 팁을 ‘셀러존’ 무료 교육을 통해 셀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LF보리보리, 신학기 맞이 가방 등 기획전

LF 트라이씨클의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가 27일까지 베이비&키즈페어 ‘쑥쑥데이’를 열고 육아·등원·등교 관련 인기 상품을 할인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은 최대 85% 할인율을 제공하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앱 전용 5% 추가 할인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행사 기간 누적 결제금액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아쿠아플라넷 제주 입장권 및 제주 굴가방, 굴선글라스, 굴모자 등으로 구성된 굿즈 3종 세트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적용 품목은 패션, 도서완구를 비롯해 책가방과 실내화 등이다. 닥스

리틀, 헤지스 키즈, 포인터 워크스, 피터젠슨 등 백화점키즈 브랜드부터 빅토리아 앤드 프렌즈, 토박스, 원하우스 등 인기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유아를 위한 상품에는 봄 의류와 등원에 필요한 낮잠이불, 식기도구, 칫솔,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 밀착형 상품들이 최저가 2000원대부터 준비됐다. 각종 영양제와 간식류도 합리적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trawberry

ANGELINUS | mashimaro



마시마로
트리플베리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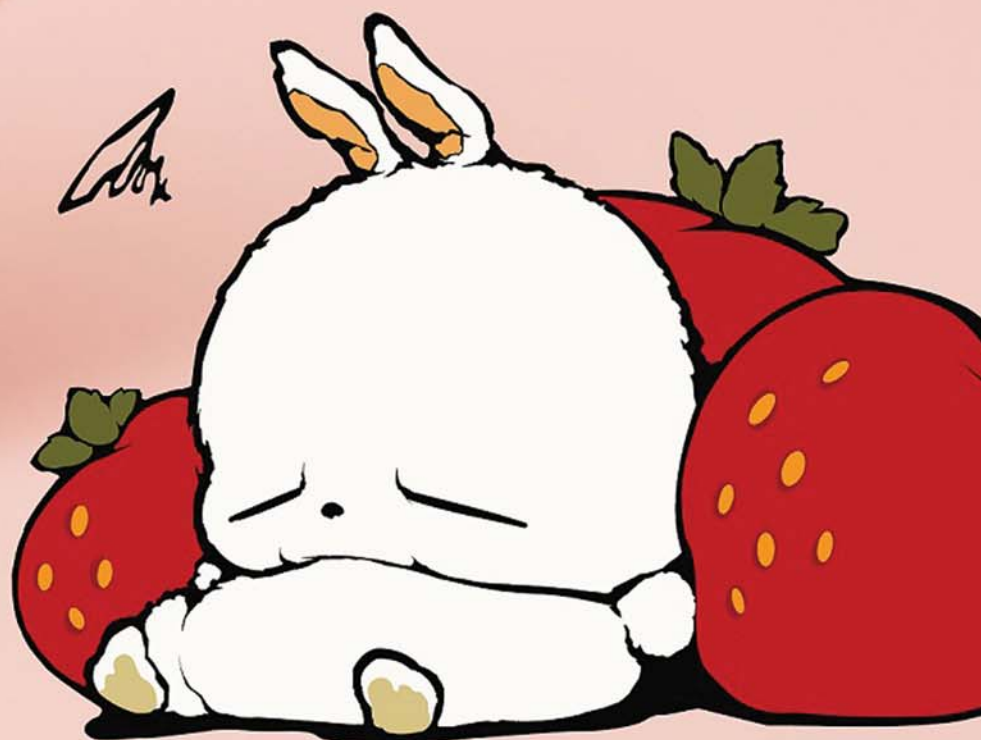
마시마로
캐롯초콜릿케슬



마시마로
딸기주스



마시마로
쫄득베리라떼





BNK경남銀, 울산에 1억 상당 전통시장상품권 기탁

BNK경남은행은 '2023년 설맞이 사랑나눔 활동'을 통해 울산광역시에 1억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이상봉 상무(왼쪽 두번째)와 BNK부산은행 최영도 상무(오른쪽 첫번째)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를 방문해 김철 회장(오른쪽 두번째)에게 '2023년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증서'를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BNK경남은행

깨끗한나라

명절 소외계층에 생활용품 기부

깨끗한나라가 2023년 계묘년 설날을 맞아 지역 사회 소외계층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

깨끗한나라는 서울 용산구·충북 청주시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위생 및 생활용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관련 용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손길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기부 물품은 생리대 '자연에게 순수한 면'과 아기 기저귀 '보습이 액션핏팬티' 등으로 구성됐으며 용산복지재단 및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시설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깨끗한나라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기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넥슨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1월 흥행 대행진

서브컬처 수집형 RPG '블루 아카이브'의 일본 서비스 2주년 기념 생방송이 현지에서 화제다. 22일 진행된 생방송에서 유저들이 기다려온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는 물론 다양한 소식 등으로 생방송의 최고 시청자수는 약 6만6000명에 달했으며, 일본 트위터 트렌드 1위도 차지했다. 게임 흥행으로도 이어져 1월 25일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실시간 최고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종전 자체 최고 흥행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다. /넥슨게임즈

골든블루 위스키 '카발란' 매출 신장

(주)골든블루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사진)'의 2022년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6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발란은 2006년에 킹카그룹이 설립한 타이완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인 카발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로 지난 2017년부터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수입, 유통하고 있다.

카발란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위스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에 있다. 일반적으로 싱글몰트 위스키는 단일 증류소에서 원액을 증류하기 때문에 증류소의 특징이 맛과 향에 반영된다. 카발란의 경우 덩고 습한 타이완의 기후 조건이 숙성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타이완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캐스크(위스키 등을 숙성시키는 나무통)의 풍미가 원액에 더 빨리 스며들게 하는 특징이 있다. /신원선 기자



현 윤 열 의
자유보감

전 세계 장수하는 국가 중에서 쿠바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약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라고 쿠바 보건당국이 발표하였다.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약 1만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민 평균 수명은 79.4세로 미국(79.8세)과 비슷하다. 쿠바의 100세 이상 인구는 100만명당 346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364명)와 비슷한 숫자다.

쿠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패밀리 닥터'라는 예방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국민 건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국민에게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PPG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PPG의 원료는 사탕수수 표면

에 있는 왁스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이라는 기능성 물질이다. 폴리코사놀은 긴사슬지방 알코올의 혼합물로서 주로 곡류의 겨층과 배아, 사탕수수, 과일의 외피, 벌집, 기타 식물에서 추출한 왁스를 경화한 후 정제하여 얻는다.

폴리코사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준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4주간 섭취했을 때 LDL 수치는 22% 감소하고, HDL 수치는 29.9%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물질로 장내에서는 유지의 흡수와 소화해 필요한 담즙산의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음식물로 섭취되는 양이 간의 조절능력 이상으로 증가하면 혈관벽 등에 축적돼 동맥경화의 유발요인이 된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질도 좋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HDL 콜레스테롤을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8주간 폴리코사놀을 섭취했

더니 HDL 콜레스테롤의 양이 늘어났고 크기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됨'이란 내용으로 혈관 건강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 사탕수수 유래의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 표면층의 왁스 성분으로부터 8종류의 고지방족 알코올을 특정 비율로 추출 정제해 만든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개선과 혈압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1.3%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2%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29.9% 상승한다고 하였다. 폴리코사놀은 혈청내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혈액내 지질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근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쌀겨·녹차 등의 식물에서 모두 추출이 가능하지만 기능성이 입증된 것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 뿐이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이기 때문에 혈액에 녹지 않는다. 지질단백과 결합하여 혈액과 함께 이동하는데 지질단백의 밀도에 따라 LDL(저밀도 지질단백), HDL(고밀도 지질단백)로 구분하고 이 중 HDL과 결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이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배설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며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결과를 종합하여 동맥경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은 생활습관을 바꾸면 개선이 가능하다. 새해부터는 내 몸에 맞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등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쿠바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 보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우리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1조4000억 특별금융지원

마포구·서울신용보증과 맞손

우리은행은 구금고를 맡고 있는 14개 구청과 협약해 매년 10억원씩 4년간 총 560억원을 출연하고 구청의 동반출연에 따라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마포구청,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포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구금고로 재산정된 마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과 마포구청은 매년 각각 10억원씩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은 마포구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은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매년 250억원, 4년간 총 1000억원의 특별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마포구청의 추천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체당 최대 8억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을 받으며 최대 연 0.8%의 보증료 우대혜택과 함께 '서울시구청 소기업 통장'에

가입하면 우리은행의 각종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으로 지역 맞춤형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포괄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권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나급) 교육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한삼석 ◇과장급 교육파견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권오성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이용만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운영국 ◆머니투데이 ◇승진 △유병률 티타임즈 에디터(국장대우) △배성민 에디터(부국장) △송정열 디지털뉴스부장 겸 콘텐츠 총괄(부국장) △황종덕 혁신전략팀장(부국장) △한인재 뉴미디어영상부장(부국장대우) △이학렬 금융부장 △최석환 정책사회부장 △반준환 증권부장 △송지유 국제부 부장대우 △김유경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강기택 산업1부장 △이상배

정치부장 △박재범 경제부장 △김진형 산업2부장 △김경환 건설부동산부장상속

부음

▲김정수씨 별세, 전호현(음성군 복지정책과장)씨 모친상 = 24일 오전 5시20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90 파주성모병원부설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후 1시. 031-941-4444 ▲김정순씨 별세, 정길호(OK저축은행 대표이사)·인호(자영업)·윤희씨 모친상, 김정아·최선행씨 시모상, 박석원(포스코건설 부장)·박수연(대우건설 상무)씨 빙모상 = 25일,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장지

수원승화원. 031-219-6654

▲윤철호(월요신문 대표)씨 별세, 김순욱(월요신문 대표)씨 남편상, 윤성희·윤소희씨 부친상, 전주준·송기락씨 장인상 = 25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11시 30분, 02-3410-3151 ▲임창무(전 동아연 부회장·전 동화은행 감사)씨 별세, 이희자씨 배우자상, 임병철(전 KDB인베스트먼트 부사장·전 신한지주 연구소장)·병대(LG워싱턴사무소 소장·전무)·희정·정수씨 부친상, 이윤수씨 시부상, 최건(골든플랫폼 대표)·신성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씨 장인상 =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용인공원)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 모집

대상㈜청정원이 내달 5일까지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은 대상㈜이 '청정원 임직원 봉사단', '청정원 주부 봉사단'과 함께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이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상㈜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내달 21일 합격자 공지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입단식과 워크숍은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내달 5일까지 모집, 10개월 활동 우수자 입사 지원시 우대 등 혜택

이번 6기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활동 기간동안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는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멘토링 캠프, 온실가스감축 캠페인 아이디어 발표회 등 대상㈜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회공헌 사업과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 6기 활동 시 ▲직원 멘토링 ▲우수 활동팀 포상(530만원 상당) ▲소정의 활동비 및 단복, 단증, 수료증, 푸드박스 ▲VMS(사회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 실적 인정 ▲우수 활동자 당사 입사 지원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진짜 수지맞는 장사



신 세 철

쉬운 경제

어릴 적 태릉 화랑대에 있는 ‘지인용(智仁勇)탑’ 아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군인은 지락을 닦아 인화단결 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승리한다는 의미라고 여겼다. 나중에 논어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논어, 자한 28).”는 구절을 보고 가슴에 새기고 싶었다.

“지혜가 사리를 충분히 밝힐 수 있기에 의혹하지 않고, 어짊이 욕심을 이겨내니 근심이 없고, 기개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에 두렵지 않다.”는 뜻이었다.

지인용은 후대에 중용에서 재조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배우기를 좋아함은 깨달음(知)에 가깝고, 힘써 베푸는 어짊(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깨닫는 일은 용기(勇)에 가깝다(好學近乎知 力行近乎仁 知恥近乎勇. 中庸20)고 하였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깨달음은 도덕성 바탕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보다 숨기는 일이 능력이라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간으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남다른 입신양명이 내면 세계에서는 오히려 오욕이 되어 어려워하는 경우를 엿보게 된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과실을 질러 상대방 잘못으로 덤터기 씌우려는 꼬락서니를 용기라고 착각하는 걸까?

미래의 대한 고귀한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겉은 태연할지 몰라도 내면세계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 인생은 결국 멍들 수밖에 없다. 만용과 용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상대방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신까지 결국 바보를 만들고 만다. 덧칠하고 위장하는데 진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거짓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지나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어찌 용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다른 말을 내뱉어야 한다면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꼴이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미래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씩이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

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苗而不秀者有矣夫 秀而不實者有矣夫. 논어, 자한 21)”는 말이 있다.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

죄의식과 수치심을 잃지 않으려면 번민할 때도 있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는 뜻일 게다. 반백년 더 너머 본 ‘지인용’탑은 군인의 길을 가려 할 때는 변절한 별을 달리는 목표보다 먼저 참군인이 되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강조했을 게다. 경제성장과 발전도 과정을 중시해야 탄탄해져 대외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공자는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익을 취하는 자세다”라고 덧 붙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등이 되려고만 욕심을 내다보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된다. 멀리 미국 미시간에서 온 좋게 중국인 서예가를 만나 ‘지인용 12자’를 써 달라 했더니 그도 의외라는 모습이었다. 휘호를 받아 간직했다가 친구에게 주면서 지인용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며 서로 웃었다. ‘지인용’은 비록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옳다고 여기면서 지향하는 자세만 가져도 ‘진짜 수지맞는 장사’다! /경제칼럼니스트

‘소비기한’ 제대로 알려야



기지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올해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대체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의 식품섭취 기간이 늘어나고 폐기비용 감소와 농산물수요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명절 전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마트에서도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대다수였다. 정부가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아직 대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소비기한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의 안내나 소비기한 관련 홍보물 등도 없어 소비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기한’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한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을 설정시점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

정한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유통기간처럼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과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에는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기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인만큼,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알기 쉽게 기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혼재돼 판매되므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ree6834@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6일 (음 1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누구나 있기 마련. **48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60년생** 금전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있다. **72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84년생** 참으면 복이 되는 날이다.



37년생 아래 직원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 기분이 상해. **49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1년생** 배우자가 내게 좋은 협력자. **73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85년생** 경관은 화려하나 머물 곳은 없는데.



38년생 내키지 않은 모임이라면 가지마라. **50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중지하는 것이. **62년생** 사랑이 충동적이지 않길. **74년생** 상대가 경쟁자여도 본받을 것은 인정해야 한다. **86년생** 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니 얼굴도 밝아진다.



39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51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3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75년생**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성사되지 못한다. **87년생** 조직에서 하나를 양보하니 세 개로 돌아오는 날.



4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이 인다. **52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가 큰 성과로 돌아온다. **64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76년생** 결과가 보이나니 적극적으로 행동. **88년생**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게 세상사이다.



41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53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 **6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77년생** 오늘은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석. **89년생** 주변이 시끄러워도 영업에서 이득발생.



42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54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66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78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이다. **90년생** 짜증나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하는 운.



43년생 모처럼 비가 오니 경제적 여건이 호전. **55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67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79년생**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니 다시 실행. **91년생** 사춘이 땅을 사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44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56년생** 감정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 **68년생** 재혼 앞두고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0년생** 갑자기 길 떠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92년생** 집짓고 삼년이라 했는데.



4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5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69년생** 동분서주 하는 날. **81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93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야 하는데.



46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58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70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82년생** 종로에서 땀 땀고 한강 가서 분풀이를. **94년생** 종이 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을 허물 수는.



4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59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71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83년생** 작장에서 신경질 내지 말고 일을 진행. **95년생** 좋은 일이 생기니 운이 풀리고 이익도 늘어난다.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⑦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논하길, 갑기甲己의 해에는 토土운이 주관하고 을경乙庚의 해에는 금金운이 주관하고 병신丙辛의 해에는 수水운이 주관하고 정임丁壬의 해에는 목木운이 주관하고 무계戊癸의 해에는 화火운이 주관한다. 자평정전子平眞詮에서 논하길, 천간天干의 합화합化는 십천간十天干의 음양陰陽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은 토土에서 생기고 화수목火水木金은 토에서 기생하므로 제일먼저 토土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갑기합에서 시작하여 토로 변한다.

토가 금을 생하므로 을경이 합하여 생긴 금이 그다음에 나타나고 금생수金生水하므로 병신합이 합하여 생긴 수가 그다음에 나타나고 수생목水生木하므로 정임합이 합하여 생긴 목이 그다음에 나타나고 무계합하여 생긴 화火가 그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순서대로 오행五行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토에서 시작하여 상생相生하는 순서에 따라 오행이 나타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십간十干의 합화합化하는 원리이다. 천문유초天文類抄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했다. 창천蒼天의 목기木氣가 지나가는 28수의 위궐 室室 九圭 누룻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정丁과 임토에 해당하므로 오운육기五運六氣에서 정임丁壬이 합하여 목이되고 정과임의 해에는 목기木氣가 먼저 생겨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단천丹天의 화기火氣가 지나가는 28수의 우후 女女 벽벽 九圭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무戊와 계궐에 해당하므로 무계가 합하여 화가 되고 무와계의 해에는 화기火氣가 먼저 생겨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금천?天의 토기土氣가 지나가는 심心 미尾 각角 진軫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갑과기에 해당하므로 갑과기가 합하여 토가되고 갑과기의 해에는 토기土氣가 먼저 생겨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2						
4			1	7	8			
9	7			4			2	
				4		1		
2				5				4
	9		6					
	5			8			3	6
		7	9		6			1
					2			

					8		9	
					2		4	
		7						
7	8			5		4		
				8	1	3		
1				4				
	7				4			
9								1
				6				

정답

6	8	2	1	2	9	8	7	9
1	9	7	9	8	6	2	2	8
9	8	2	2	8	7	6	9	1
2	2	9	8	1	9	7	6	8
7	9	6	8	9	2	8	1	2
8	1	8	7	6	2	9	9	2
8	2	9	9	7	8	1	2	6
9	6	8	2	2	1	9	8	7
2	7	1	6	9	8	2	8	9

7	8	2	6	9	1	8	9	2
1	2	8	9	2	8	7	9	6
9	9	6	7	2	8	1	2	8
8	9	2	2	7	6	9	8	1
9	2	8	1	8	2	6	7	9
6	1	7	8	9	9	2	8	2
2	8	9	9	1	2	8	6	7
8	7	9	2	6	9	2	1	8
2	6	1	8	8	7	9	2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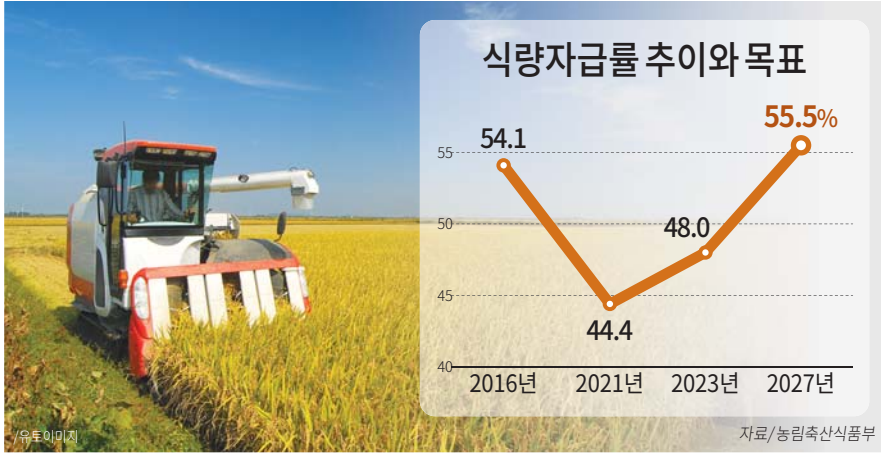
논에 가루쌀 등 재배하면 정부지원금… 쌀 수급불안 해소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업인·농업법인 지급 대상
농가 소득 향상 등 효과 기대

올해 논에서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121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 쌀 수급불안을 해소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하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

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인센티브를 부여,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000㎡ 이상 논(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전년 10월~ 당해년도 10월까지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2월15일~3월31일까지 진

행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해외서 K-푸드 알린 ‘우수 한식당’ 8곳 선정

농식품부-한식진흥원, 21개 항목 평가
뉴욕 ‘정식’, 파리 ‘종로삼계탕’ 등 지정

미국과 프랑스 일본 주요 도시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당 8곳이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뉴욕의 ‘정식’·‘아토믹스’·‘윤 해운대 갈비’, 파리의 ‘순 그릴 마레’·‘종로 삼계탕’·‘이도’, 도쿄의 ‘윤가’·‘하수오’ 등 8곳을 우수 한식당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해 해외 한식당 분포와 인지도 등을 고려해 뉴욕, 파리, 도쿄 3개 도시를 정해 한식당 신청·접수한 뒤, 한국산 식재료 사용과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우수 한식당을 선정했다.

뉴욕의 ‘정식’은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해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2011년 개점해 한



파리 ‘종로 삼계탕’

/농식품부

식당 최초로 운전자에게 식당과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미쉐린(Michelin) 가이드 2스타’를 획득한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윤 해운대 갈비(Yoon Haeundae Galbi)’는 한국 전통 갈비 구이문화를 재현한 전문점으로 소금, 간장, 매실청, 된장 등 요리에 사용하는 주요 제품들을 국산으로 사용한다.

미식의 도시 파리의 ‘순 그릴 마레(Soon Grill Marais)’는 한국식 구이문화

를 재현해 삼겹살, 돼지갈비 등 다양한 구이 메뉴와 돌솥비빔밥, 파전 등을 제공하며, 떡, 미역, 된장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파리의 ‘종로 삼계탕(Jongno Samgyetang)’은 닭을 주재료로 전통 한방삼계탕과 함께 한국 지역명이 붙은 동래 파전, 속초 닭강정, 부산 정구지지집 등 친숙한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도쿄의 ‘윤가(Yunke)’는 영월 잣, 지리산 오디 소금, 보은 대추 등 국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고, 전통 한식의 맛과 멋을 품격있게 제공해 6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았다.

도쿄의 ‘하수오(Hasuo)’는 궁중음식을 일본 청년 세대의 취향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깔끔하게 제공한다. 간장, 고추장, 소금 등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소문으로 특히 젊은 일본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외진출 韓스타트업 절반은 ‘본 글로벌’

시작부터 해외서 창업한 회사

현재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절반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한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는 지난해 12월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 29개국의 해외 진출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51%가 ‘본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스타트업 259개사 중 26개사가 신규 창업 스타트업이었다. 한

편 2021년에 조사된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에는 10%에 해당하는 26개사가 지난 한 해 동안 폐업하거나 엑시트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총 6개사가 해외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36.7%가 북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실리콘밸리에 있다. 이 외에도 중국(19.7%), 동남아(15.4%), 유럽(10.8%), 일본(6.2%) 등의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진출 목적으

로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해외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고, ‘소비자 및 고객층 확대’가 36%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연 매출은 100만 달러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고, 1만 달러 이하도 18%로 아령형 분포를 보였다.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진출방식은 단독 투자가 76.5%로 가장 많았고,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8.1%, 해외지사를 본사로 전환하는 ‘플립’이 5.0% 순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정부 지원 사업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진출 준비에 소요된 기간으로는 1~2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양성운 기자 ysw@

기보, 中企 탄소감축 지원에 5000억 공급

탄소가치평가보증 통해 자금조달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으로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탄소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특히,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해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감축기업(시설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의 탄소감축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가운데)이 미국 플러턴시장 고광림 특사단장(왼쪽 두 번째), 오세진 경제고문(오른쪽 두 번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aT

aT, 美 플러턴시와 ‘김치의 날’ 추진

지역 우수 특산물 수출 확대 협력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플러턴시에도 ‘김치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이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미국 플러턴(Fullerton)시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의 특사단

으로 방한 중인 고광림 특사단장과 오세진 경제고문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식품 공급망·판매망·물류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K-푸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우수 특산물의 수출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버스타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확진 5명 중 1명 재감염...당국 “WHO 비상해제 후 격리의무 검토” /사진 뉴시스
▲ 22명 탑승 홍콩 화물선 침몰...14명 구조, 8명 실종

▲ 강추위 속 동파·정전 잇따라...하늘·바닷길 정상화
▲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첫 지급



▲ ‘임기만료 8개월째’ 서울대병원장, 차기 재공모 절차 시작
▲ 오늘 서울에 최대 7cm 눈... 지하철·버스 추가 배차 /사진 뉴시스



[라이프]
당·칼로리 부담↓
제로 열풍
더 뜨거워진다
니



Life

[라이프]
“마스크 안녕”
립스틱 등
뷰티업계 화색
L2



“골목 매력에 빠져봐”... 경춘선숲길·용마루길 상권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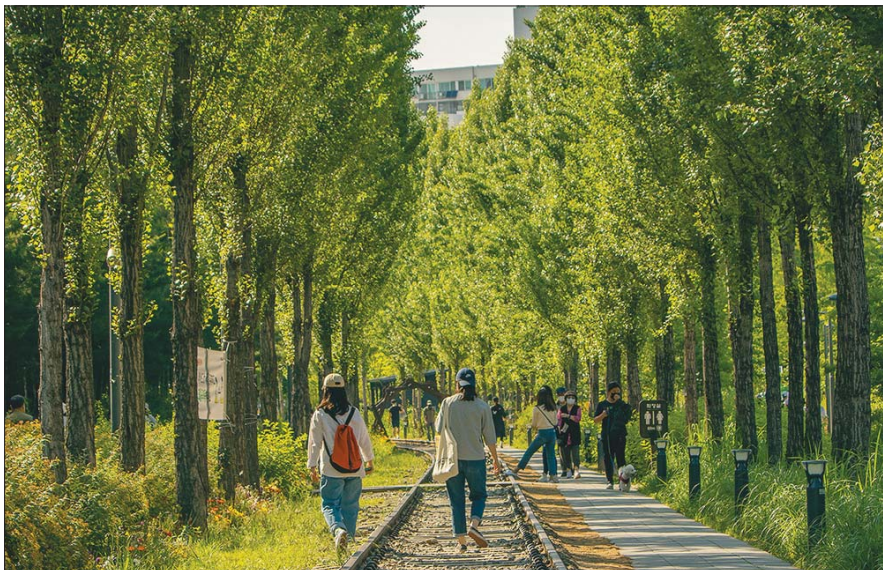
서울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3년간 30억 투자, 상권발전 지원
경춘선숲길, 지역 생산품 ‘독립마트’
용마루길, 감성카페 등 청년상권

서울시는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상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경춘선숲길로 유입된 청년상인들이 개발한 제품을 브랜딩해 경쟁력을 높이고, 이 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독립마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노원구 소재 경춘선숲길은 인근에 7개 대학교가 자리해 유동인구가 많고 볼거리가 가득한 공릉동 도깨비시



경춘선숲길.

/서울시

장·국수거리 등 상권의 기본기를 갖춘 곳”이라며 “‘공릉동 101’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권 내 이벤트와 할인 행사 소식을 알려 젊은층의 발길을 사

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상지인 용마루길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과 가까운데다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대료가 저렴해 청

년들의 첫 창업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시는 현재 영업 중인 감성카페와 음식점을 활용해 관광객의 발길을 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용마루길을 시장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상권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인근 용산용문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소비자 인식과 수요 조사를 벌여 브랜딩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해 상권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 상징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시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점포(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시민참여 행사와 특색있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상권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것

는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인 조직화도 지원한다.

1차년도 예산은 상권당 최대 5억원 내외다. 2~3차년도에는 연차별로 최대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 상권에 대한 자원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상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2개 상권은 보행친화 녹색도시, 감성문화도시 같은 시정 운영방향에 부합해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며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모델이 되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텃밭지원, 자원순환... 진일보한 도시 정책

텔리,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슈투트가르트, 도시정원 프로젝트
에드먼턴, 관내 ‘에코스테이션’ 운영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설치, 정원 조성 보조금 지원, 에코스테이션 구축...’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퍼스트무버(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텔리NCT 정부는 성전환자들이 화장실 이용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연구원은 “성전환자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소

외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인도는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텔리 NCT 정부는 지역 내에 성전환자 전용 화장실 9곳을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56개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6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2년 내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녹색 공간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도시정원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유용작물을 심는 도시정원을 조

성·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도시텃밭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정원용 흙, 씨앗, 모종, 건축자재) 및 부대장비(연장, 정원 의자 등) 구입비를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쓰레기 수거 및 자원 순환 시설인 에코스테이션을 관내 거점별로 운영 중이다. 에코스테이션은 개인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형 폐기물 배출 빈도가 잦은 캐나다의 생활 방식에 맞춰 대형·화학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택가의 주요 거점에 구축,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된 시설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3703억 투입

메타버스·AI 등 행정에 신기술 접목

서울시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사업에 3703억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 안전 체편관, 부동산 계약, DDP 메타버스 같은 시민체험 서비스를 확대하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 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한다. 서울 전역 안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사업에는 92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걱정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융합해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 사업으로는 ▲어르신 여가활동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조성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로봇 활용 디지털’ 교육 ▲디지털 약자의 정보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한 ‘사랑의 PC’ 보급 등이 마련됐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단지 조성

지속가능 농업 위해 유기농업 키워
용인·화성 등 7개 시군에 19곳 조성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7개 시군 생산자단체 19곳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

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미래세대 건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 19개 친환경 벼 생산자단체로, 사업량은 771ha다. 이 가운데 친환경 벼를 신규로 생산하게 된 면적이 102ha다.

도는 35억 원을 투입해 19개 단체에 ▲친환경 벼 종자, 육묘, 개량 물고 등 전통적 작부 체계 계승 ▲유박, 바이오차, 친환경제제 등 농업부산물 재순환·재활용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토양미생물, 논두렁 제조 등 토양 양분 및 환경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군 생산자단체별로 둠벙(임시로 용수를 가두어 두는 물 저장고)을 조성해 벼와 메기, 큰장거미새우 등 담수어를 함께 키우는 복합생태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농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국방부, 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포탄 생산 500% 늘려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두고 심화하는 대립에 민주당 지도부 만나 /사진 뉴시스

▲독일 2022년 러시아에 수출 45% ↓ ...“제재로 19년 만에 최저”
▲김정은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필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서 규모 4.9 지진...원전 이상 없어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긴장...‘이’탱크 국경철책 넘어 /사진 뉴시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